



#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한 교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27
4	讲义	54
5	퀴즈	74
6	보고서	78
7	자료	80



## 학습안내

### 01

#### 과목소개

이 강좌의 목적은 북한경제의 실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북한은 공식적으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와는 이질적인 측면이 많이 관찰된다.

이 강좌에서는 먼저 북한경제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수성이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이어서 경제개혁, 시장화,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대북제재, 생활수준 등을 주제로 2000년대 이후 북한경제 실태를 살펴보면, 오늘날 북한 경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남북경협,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해서도 논할 예정이다.

### 02

#### 학습목표

- (1) 북한경제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2) 오늘날 북한경제의 실태와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3) 북한경제 및 통일한국 경제를 전망하고 설명할 수 있다.

### 03

#### 기대효과

이 강좌를 통해 수강생 여러분은 북한경제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오늘날 북한경제의 실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며, 앞으로의 북한경제, 그리고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해 전망할 수 있는 식견을 갖추게 될 수 있을 것이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이해
2주차	해방 직후~1960년대의 북한경제
3주차	1970년~1990년대의 북한경제
4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경제개혁
5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시장화
6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대외경제관계
7주차	2000년대 이후의 북한경제: 산업
8주차	대북제재
9주차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
10주차	북한의 인구변동
11주차	남북경제협력
12주차	통일한국의 경제: 쟁점과 전망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2**  
 주차

**해방 직후 1960년대의 북한경제**

**2-1**

**해방 직후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정책**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강좌를 맡은 홍제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두 번째 강의로 '해방 직후~1960년대의 북한경제'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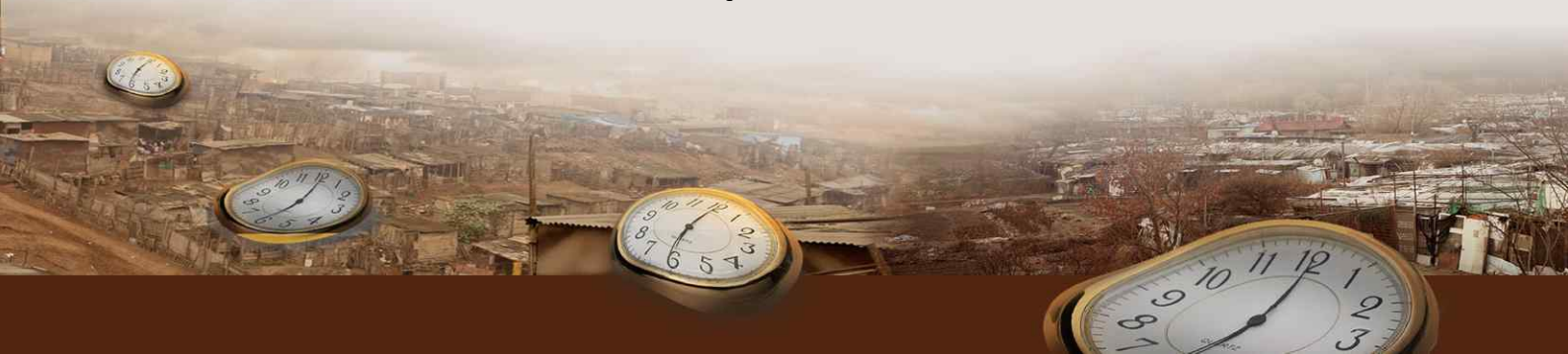
지난 강의에서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어떠한 특성과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고, 구소련, 중국, 베트남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그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실시한 개혁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강의는 북한경제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배경이 되는 지식을 쌓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강의부터는 북한경제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경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형성되어 왔던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어떻게, 또 어떠한 형태로 형성되었는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어떤 형태로 형성되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강의를 듣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북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 시스템의 원형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면서 이번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이 시기 북한의 경제실적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다루는 시기에는 북한이 남한보다 잘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상황을 놓고 보면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북한이 남한보다 경제적으로 얼마나 나았었는지, 또 그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해방 직후 북한경제 상황입니다. 해방 직후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북한경제의 초기 조건이 어떠했는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1945년 해방 당시 오늘날 북한에 해당하는 지역과 남한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어느 쪽의 소득 수준이 더 높았을까요?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남한이 더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현격히 벌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강의에서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은 남한의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국경제사 분야 연구자들이 해방 이전 시기 통계를 이용해서 추계한 결과를 보면,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림은 해방 이전 시기 남북한 지역 1인당 GDP의 추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두 지역의 소득 수준은 1920년대까지는 비슷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1930년대 이후에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1930년대 이후 남한 지역에 비해서 북한 지역 소득 수준이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943년에는 남한 지역 1인당 GDP는 119만 원인 반면, 북한 지역은 174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의 거의 1.5배 수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통계가 1943년까지만 만들어져 있어 2년 후인 1945년 상황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그사이 이러한 격차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1945년 해방 당시 북한 지역의 소득 수준은 남한의 1.5배 정도였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930년대 이후 북한 지역 소득 수준이 빠르게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 조선을 지배하던 일본이 1930년대 북한 지역, 특히 함경도 지역에 많은 대규모 중화학공장을 건설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라는 일본 기업이 당시 기준으로 세계 3위 규모의 비료 생산설비를 갖추었던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를 함경남도 흥남 지역에 설립했습니다.





그 결과 해방 직전 중공업 생산액을 지역별로 나누어 보면, 북한 지역이 80%, 남한 지역이 20%로 북한 지역이 월등히 많았습니다. 반면 경공업 생산액은 북한 지역이 30%, 남한 지역이 70%로 남한 지역 비중이 더 높았습니다.

농업은 어떠했을까요? 역시 남한 지역이 우세했습니다. 정리하면, 중공업은 북한, 경공업과 농업은 남한이 우세했는데, 부가가치 창출 규모가 더 큰 중공업이 1930년대 이후 북한 지역에 집중된 결과, 북한 지역 경제가 남한 지역에 비해서 빠르게 성장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 이와 같은 대규모 산업시설을 조선에 건설한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목적은 아무래도 전쟁에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는 데에 있었을 겁니다. 1930년대 들어와 일본은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잇따라 일으키면서 많은 군수물자가 필요했고, 그중 일부를 조선에서 생산해 조달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북한 지역에 새로운 산업시설의 건설이 집중되었을까요?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해 발전설비와 지하자원이 풍부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림에 제시된 것처럼, 해방 직전인 1944년을 기준으로 보면, 발전량은 북한 지역이 96.4%를 차지한 반면, 남한 지역은 3.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발전설비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석탄, 텅스텐, 철광석 등 중화학공업에 필요한 주요 광물도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보면, 해방 직후 상황에서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경제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어디까지나 남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리했다는 것이지, 절대적인 기준에서 보더라도 북한이 경제발전에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일단 식민지 조선의 경제발전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공업화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공업의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았고, 1930년대 이후 일제가 잇따라 일으킨 전쟁은 식민지 말기 조선 경제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해방과 함께 일본과 맺고 있던 경제적 분업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해방 이전 일본과의 경제적 분업 관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만큼, 그 영향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곧이어 남북이 분단됨에 따라 남북한 지역 간에 존재하던 분업 관계도 단절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지역은 중공업, 남한 지역은 경공업과 농업이 발달하여 분업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관계가 단절된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착수한 것은 토지개혁입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북한은 남한보다 앞서 1946년 초 토지개혁을 실시했습니다.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무상몰수 무상분배 형태라는 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토지를 빼앗아,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남의 땅을 빌려 높은 임대료를 내고 농사를 짓던 농민들은 아주 좋아했을 것입니다.

몰수 대상은 5정보, 환산하면 1만 5,000평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지주의 소유지였습니다. 지주가 5정보가 안되는 농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농지를 전부 소작을 준다든지 할 경우에는 몰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소작이라는 말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대료를 받고 땅을 농사짓도록 농민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 보상도 받지 못하고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들은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기존 지주와 토지를 분배받은 농민들 간의 갈등을 피하려고 토지를 몰수당한 지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서 땅을 분배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지주들은 북한에 남지 않고 남한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는 농민, 특히 소작을 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땅에 농사를 짓는 자작과 소작을 모두 하는 자작농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방식으로 이루어진 토지개혁 조치는 김일성 정권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높이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토지개혁이 이루어진 1946년에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인과 친일파가 갖고 있던 1,032개의 공장, 기업소, 광산, 발전소, 은행 등이 몰수되어 국유화된 것입니다. 이는 당시 산업시설의 9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산업시설 대부분이 해방되자마자 국가 소유로 바뀐 것입니다. 참고로 '기업소'라는 표현을 썼는데, 북한에서는 기업을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 친일파가 아닌 조선인이 소유한 기업들은 몰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규모가 대체로 작았습니다. 당시에는 북한에서도 개인 상공업 활동이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몰수되지 않은 산업시설에서는 개인이 상공업 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처럼 1946년에는 토지개혁과 산업시설 국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핵심은 생산설비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시설이 대부분 국유화된 건 했지만, 보신 것처럼 일부 개인 상공업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농업 부문의 경우 토지개혁을 통해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토지개혁과 산업시설 국유화를 통해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구축했다기보다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적 단계에 진입하고 있었다고 하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1947년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이행이 더욱 진전되었습니다. 우선 개인 상공업의 합작이 적극 장려되었습니다. 몇 개의 개인기업을 합쳐 협동단체 형태로 만들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을 생산합작사라고 합니다.

생산합작사에서조차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합작사에서 이들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합작사는 절반 정도는 사회주의적 성격을 띠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도 사회주의적 협동농장을 만들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을마다 '소거리반'이라는 것을 몇 개씩 조직한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거리'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를 말합니다. 소거리반 내에서는 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했습니다. 역축이라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한편 북한은 1947년부터 경제발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 북한의 1946년 공업생산은 1944년에 비해 71.7%나 감소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발전을 본격 추진하여 1947년~1949년 사이 빠르게 성장하였고, 1949년에는 해방 이전의 생산 수준을 다시 회복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기에 북한경제가 이렇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앞서 본 것처럼 북한의 전력 사정이 좋았고, 남한에 비해 산업생산시설도 더 많이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련이 경제적, 기술적으로 원조를 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소련은 1949년까지 북한에 대규모의 경제적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산업별로 다수의 소련 기술고문을 북한에 상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방 직후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50년대의 북한경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2-2

### 1950년대의 북한경제: 사회주의 경제로의 전환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해방 직후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의 북한경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경제는 1947년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북한이 일으킨 한국전쟁이 3년간 지속된 결과, 북한경제는 다시 크게 위축됩니다. 전쟁의 상흔은 남북 모두에 상당히 컸습니다.

우선 인명 피해 규모부터 보겠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전쟁 기간 중 북한 군인 55만 명, 민간인 110만 명, 합쳐서 165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북한 인구가 1,000만 명이 안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니, 인구의 15% 이상이 전쟁으로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남한의 인명 피해 규모는 민간인 99만 명, 군인 16만 명, 합해서 1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모두 합쳐 300만 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한국전쟁은 남북한 모두에게 커다란 비극이었습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물적 피해 규모도 컸습니다. 북한의 경우, 공장과 기업소 8,700개, 주택 60만 호, 학교 5,000여 개, 병원 및 진료소 1만여 개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전쟁으로 인해 인적, 물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결과, 북한의 산업 생산은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산업 생산 규모는 1949년에 이르러 해방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한국전쟁으로 인해 다시 심각하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생산능력이 얼마나 감소했을까요? 표는 1949년과 1951년, 1953년 산업 생산에 관한 통계를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1949년 생산력 규모를 100으로 놓고, 1951년과 1953년의 생산력 수준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를 이용해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생산력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953년 북한의 생산액은 1949년 생산액과 비교해 볼 때, 공업은 64%, 농업은 76%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공업생산액의 경우에는 1951년 47% 수준으로 감소했다가 회복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인해 북한의 산업 생산능력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 공업 부문별로 피해 규모가 크게 달랐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료공업이나 광석에서 금속을 추출하는 야금공업은 생산액이 전쟁 이전의 10% 수준으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산업 생산기반이 거의 파괴된 상태인 것입니다. 반면 방적공업은 전쟁 중 생산이 오히려 크게 늘었습니다. 기계제작, 금속가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휴전 상태는 70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은 전후 복구에 나섭니다. 북한은 1954년부터 1956년까지 인민경제 복구발전 3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전후 복구사업을 통해 산업 생산을 전쟁 이전인 1949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한 계획이었습니다.

전후 복구가 추진되었던 시기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으로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중공업 우선 정책이 추진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주의적 개조가 본격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공업 우선 정책 추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북한이 공식적으로 내걸었던 것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입니다. 1953년 8월 북한의 전후 복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전후 경제 건설에서 중공업의 선차적 복구 발전을 보장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표현이 좀 모호합니다. 중공업을 우선으로 하되, 경공업과 농업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우선'과 '동시'라는 표현이 함께 쓰이다 보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표현은 이렇지만, 북한 당국이 실제 의도한 것은 중공업 우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예산 중 공업투자액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만 보아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오늘날 북한은 공식 통계를 거의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경제 연구자들이 북한경제를 연구하고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북한의 경제성장률도 북한이 발표하는 값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추정치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 초반까지는 북한 당국이 통계를 어느 정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950년대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54년~1956년 북한 공업투자액 중에서 중공업 투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0%를 넘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경공업 투자액 비중은 20%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농업에 투자된 금액도 중공업에 크게 못미쳤습니다.

이렇듯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이라는 표현과 달리, 북한은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했을까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북한 당국이 중공업 우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주민들은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쟁 직후라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다 보니 경공업과 농업부터 살리기를 기대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모호한 표현을 통해 경공업·농업도 중시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전후복구기 북한 경제정책의 특징 두 번째로 언급한 사회주의적 개조의 본격화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앞서 한국전쟁 이전, 즉 1940년대 후반에 농업이나 상공업 부문에서 사회주의로 전환하기 위한 움직임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분배된 토지의 사유화는 허용되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협동농장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생산시설 대부분이 이미 국유화된 가운데 개인 상공업이 일부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들도 협동조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전 국토가 황폐해진 상황은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무래도 전쟁 중 피해를 입은 논밭이나 관개시설을 개인이 복구하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지역 주민들이 공동으로 복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인데, 북한 당국은 이를 활용해 농업협동화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농업협동화 추진은 앞서 말씀드린 인민경제복구발전 3개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농업협동화 방식은 세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 가까운 농업협동조합에서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 제3유형을 택했습니다. 이 유형은 협동농장 내 토지와 역축, 농기구 등을 모두 합쳐서 공동으로 일하고, 노동량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1940년대 후반을 살펴보면 '소거리반'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소거리반'과 비교해 보면 농업협동화를 통해 사회주의적 개조가 한층 더 진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거리반'에서는 역축을 공동으로 사용했지만, 토지를 모두 합치지는 않았었습니다. 반면 농업협동화를 통해서 역축을 공동으로 사용할 뿐만 아니라 토지도 합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 토지 대부분은 협동조합원의 공유 형태로 있었습니다. 이를 '협동적 소유'라고 합니다. 아직 토지의 '전인민적 소유', 즉 국유화는 일부 토지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습니다.

1954년부터 시작된 농업협동화는 1956년 말에는 80%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일부 농민이 협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기도 했고, 협동조합에 가입했다가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진통을 겪기도 했지만, 1958년 8월에 이르면 결국 모든 농민이 조합에 가입하여 농업협동화는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협동농장체제는 일부 달라진 부분도 존재하지만, 현재까지도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뿐만 아니라 개인 상공업 부문에서도 협동화가 추진되었습니다. 한국전쟁 이전까지 개인 상공업이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전쟁 과정에서 개인 상공업이 위축되어 전후에는 개인 기업가나 개인 상인이 상공업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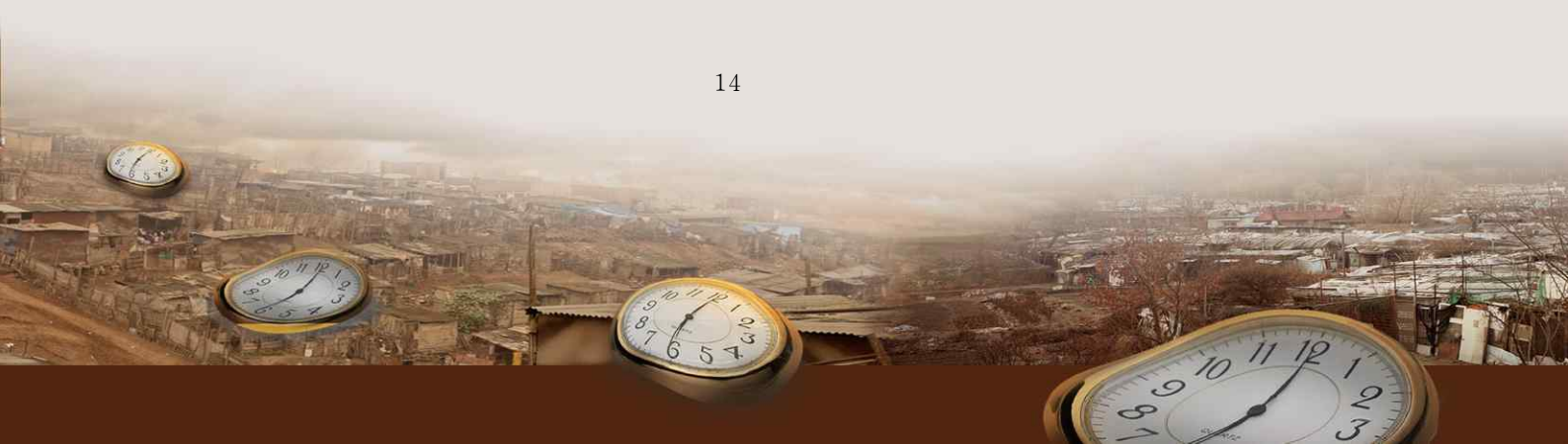


#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환 교수

따라서 개인 상공업 부문을 협동화하는 작업은 농업협동화와 달리 별다른 진통 없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농업협동화와 마찬가지로 1958년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대 전후 복구 과정을 거치면서 북한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마무리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960년대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성립하는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3

1960년대의 북한경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형성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50년대의 북한경제의 사회주의적 개조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60년대의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성립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신 것처럼, 북한은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사회주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해 왔습니다. 농업 부문에서는 해방 직후 토지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경제로 이행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한 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농업협동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결국 1958년 농업협동화를 완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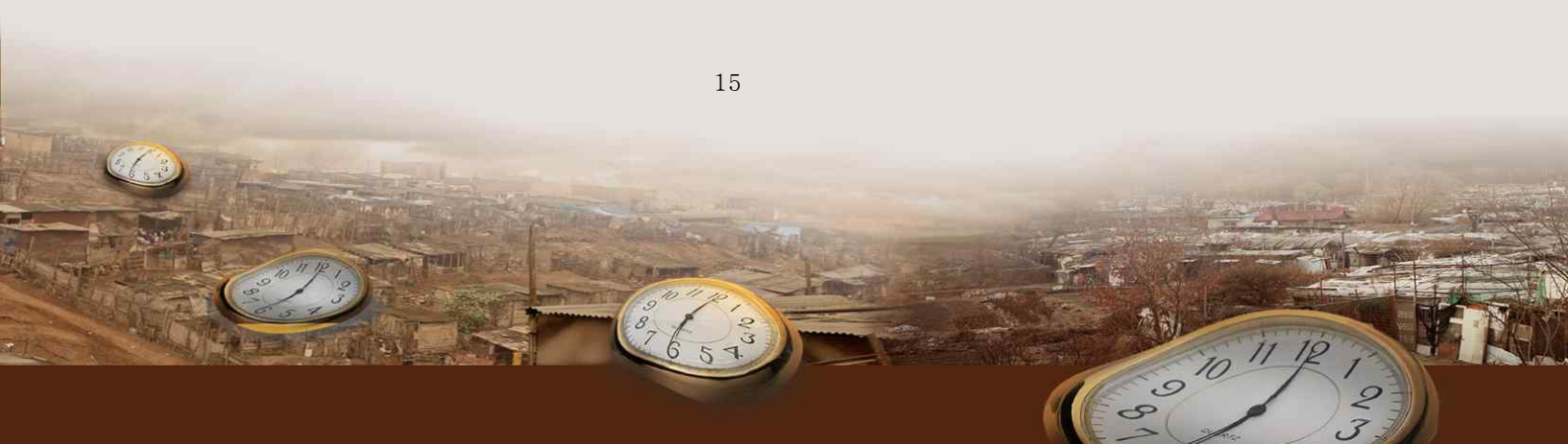
상공업 부문에서는 해방 직후 산업의 대부분이 국유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인 상공업도 일부 존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역시 협동화가 추진되어 역시 1958년 협동화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핵심적인 특징 두 가지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입니다. 1950년대에는 이 가운데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는 체제를 형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살펴볼 196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마무리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나 상품이 어디로 얼마만큼 배분될 것인가와 같은 경제행위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을 국가에 집중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기업 부문을 중심으로 1960년대를 거치면서 북한의 경제관리체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양대 축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먼저 '대안의 사업체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대안의 사업체계’라는 명칭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명칭은 1961년 1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남포에 있는 대안전기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기업관리방안에 관해 밝힌 내용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의 북한 공장과 기업소 관리체제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방 직후부터 1950년대까지는 북한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체제는 지배인 ‘유일관리제’였습니다. 기업소의 지배인이 기업의 생산 활동 전반을 관리·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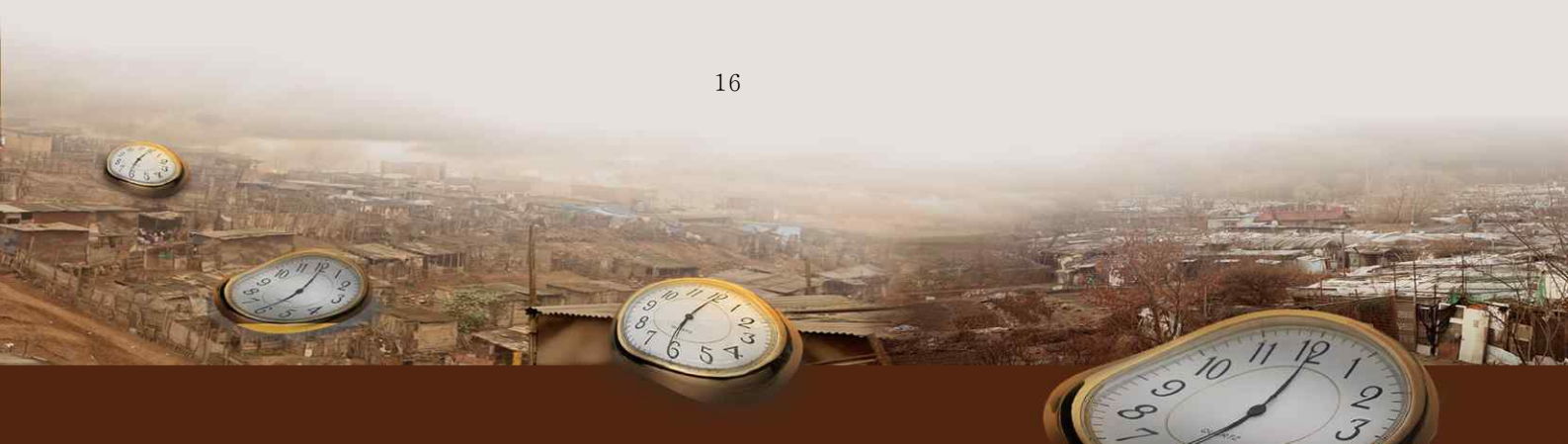
물론 그렇다고 해도 지배인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당이 즉, 북한의 경우 조선노동당이 중심이 됩니다. 모든 정책 결정이 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시 기업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배인이 갖고 있던 자율성이 그 이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긴 했지만, 또 지배인이 당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각 기업소에 있는 당 조직을 통해서 지배인에 대한 당의 지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의 사업체계’는 ‘유일관리제’와 어떻게 달랐을까요? ‘대안의 사업체계’는 지배인을 대신해 공장의 당위원회가 기업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시스템입니다. 당위원회는 당비서, 지배인, 기사장, 근로단체 책임자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위원회를 통해서 기업의 생산 활동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집체적 지도라고 합니다.

즉 ‘대안의 사업체계’도입으로 기업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당위원회에서 집단적 토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책임 역시 당위원회의 몫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운영조직체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북한의 기업관리체계는 이처럼 당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존재하고 그 하위에 지배인과 당비서가 있는 구조였습니다.



지배인은 재정, 노동, 자재공급, 근로자의 후생복지에 해당하는 후방 공급 사업 등 활동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책임자였습니다. 그리고 당비서는 노동자들의 정치조직 생활을 지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림을 보면 지배인 밑에 기사장이 있는데, 기사장은 생산 현장을 직접 지도, 관리하면서 생산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사장도 당위원회의 구성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공장과 기업소의 관리·운영조직체계가 이처럼 구성되어 당위원회가 최고의사결정 기관으로 존재하긴 했지만, 실제로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은 당비서였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은 당의 통제를 받으면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업관리에 관한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당위원회의 의장을 맡는 당비서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안의 사업체계’에서 지배인은 기업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당비서와 협의해야 했습니다. 또 기업 관리상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비서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정리하면, 1950년대까지 실시된 유일관리제와 비교하면,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지배인의 권한이 약화되었고, 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은 지배인 대신 당비서가 주도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기업 운영에 대해서 지배인과 당비서 중 누가 더 전문성을 지니고 있을까요? 당연히 지배인이 더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또 당비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적인 요소보다는 정치적인 요소를 더 많이 고려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배인 대신 당비서가 기업의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한 이러한 조치는 기업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지배인 대신 당비서가 기업 내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생산에 필요한 자재나 자금을 공급하는 체계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자재를 기업소가 알아서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대안의 사업체계'에서는 내각의 성이나 관리국에서 자재를 기업소에 책임지고 현물로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중앙집중적 자재공급 체계'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유일적 자금공급체계'도 구축되었습니다. 기업소 운영에 필요한 자금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안의 사업체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당비서 중심 구조로의 변화와 생산 자재·자금 공급체계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앞서 북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양대 축은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안의 사업체계'에 이어서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의 일원화·세부화'가 도입된 것은 1965년입니다. 계획의 일원화라는 것은 모든 경제활동이 중앙계획 당국의 명령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앙에서 모든 경제활동을 명령하고 통제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의 세부화는 말 그대로 최대한 세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가 부문, 기업, 지역 간에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이처럼 계획을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한 것은, 계획경제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임으로써 그간 계획경제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시도는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1960년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구축하는 작업이 이루어졌음을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의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194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 구축의 핵심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형성이라는 과제를 북한 당국이 어떠한 단계를 거치면서 해결해 갔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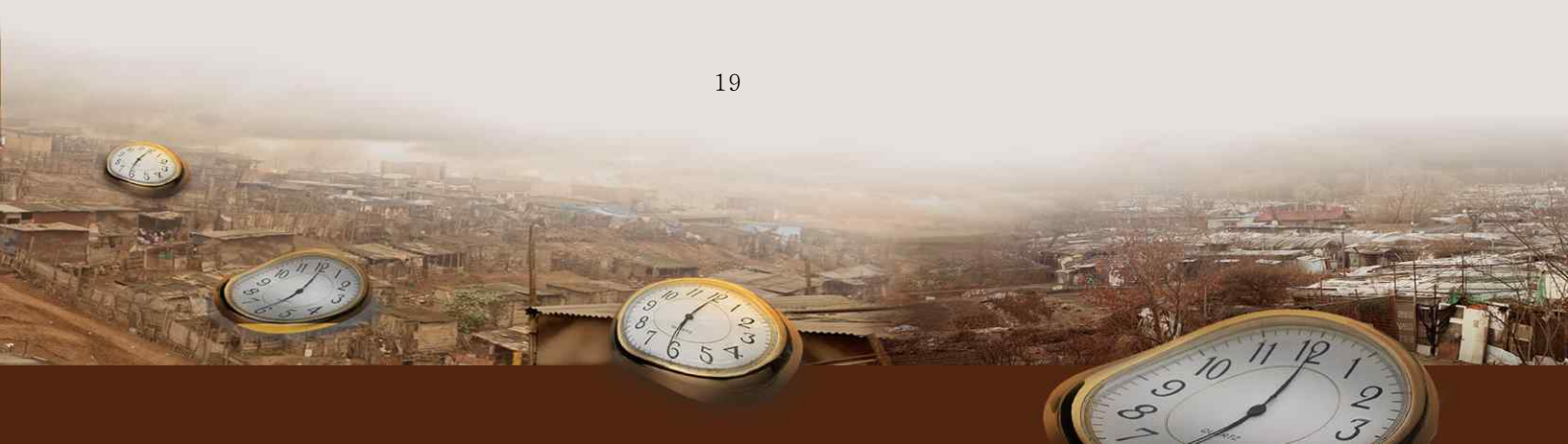




#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환 교수

그렇다면 당시 북한의 경제적 성과는 어떠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1960년대까지 북한의 경제실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 2-4 1950년~1960년대 북한의 경제실적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1960년대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구축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950년~1960년대 북한의 경제실적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1960년대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를 구축했을 뿐만 아니라, 급속한 경제성장도 추구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과는 어떠했을까요?

앞서 북한 당국은 1960년대 초반 이후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경제실적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북한 당국이 발표한 단편적인 자료들도 있고, 제한된 자료를 이용해서 당시 북한의 경제실적을 추정한 연구들도 있어서 개략적으로 그 실태를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선 그림에 제시된 북한 당국이 발표한 경제성장률부터 보겠습니다. 북한이 일정 기간별로 평균치를 발표한 것입니다. 참고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산정 방식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산정 방식과 좀 다릅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50년대 중반에는 30%에 달했고, 1950년대 후반에도 20%를 상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960년대 들어와서도 성장률이 1950년대에 비해서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1950년대 중반 남북한의 소득 수준이 비슷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가정한 이유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제시된 북한 당국이 발표한 성장률을 적용해 보면, 1980년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1인당 소득의 세 배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는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결론입니다. 참고로 1980년 무렵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3주차 강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의 경제실적을 추정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은행 소속 연구자들이 추정한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1957년부터 통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1950년대 후반에는 경제성장률이 13.6%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한 21%에 비해서는 낮으나 역시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는 4%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표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북한이 발표한 통계와 한국은행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 중 어느 쪽이 현실에 더 부합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발표한 통계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행 연구진이 추정한 결과는 성장률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과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추계치도 정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는 해도 북한경제의 장기적인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은행 연구진이 추정한 결과를 가지고 논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북한경제는 1950년대 후반에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1950년대 후반에 어떻게 빠른 성장세를 기록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60년대 들어와 성장세가 둔화된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50년대 후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 투입이 많아지거나, 생산성이 향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둔 가운데 경제성장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는 생산요소 투입을 늘리는 데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고, 강제저축 메커니즘을 통해 자본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회주의 국가 대부분은 초기에 외연적 성장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즉 생산요소 투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으로 인해 남성 인력이 부족해지자 북한은 1950년대 중반 이후 여성 노동력을 동원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 임금을 규제한다거나 애국미 납부, 강제저금, 화폐개혁 실시 등을 통해 강제저축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북한의 노동 투입과 자본 투자 규모는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펼친 대중운동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펼친 대중운동의 대표적인 예로 1950년대 말부터 전개된 '천리마 운동'이 있습니다. 보통 사회주의 건설 초기에는 혁명적 열기를 불어넣으려는 이러한 대중운동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북한에서도 이러한 대중운동이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됩니다.

원조도 중요했습니다. 북한은 소련, 중국,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원조받았는데, 이것은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으로 전후 복구기였다는 점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빠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정리하면, 1950년대 후반의 빠른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외연적 성장의 추진,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의 전개, 원조를 통한 외부의 지원, 전후 복구라는 특수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강조할 점은 이처럼 초기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양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는 사회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외연적 성장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없다는 것에 있을 겁니다. 초기에는 노동이나 자본의 투입 증가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으나, 그것이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생산요소 투입 증대를 통한 외연적 성장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한계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그 이후에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포적 성장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기업 간에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경영자, 노동자에게 생산성을 높일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포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도 1960년대 들어와 차츰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중운동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초기의 혁명적 열기가 수그러들면, 사회적으로 규범과 규율이 약화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북한에서도 1960년대 들어와 그러한 조짐이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군사비 부담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겁니다. 이러한 부담은 남북한 모두 지고 있었지만, 북한은 남한에 비해 인구가 적었던 만큼, 남북이 동일한 군사비를 지출한다고 해도 1인당 군사비 부담은 북한이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리하면, 1960년대 들어와 북한은 외생적 성장정책이 서서히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으나,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한계로 인해 내포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실패했으며, 대중운동의 효과도 약화되었고, 또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 부담에 시달린 결과 성장률이 크게 둔화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1950년~1960년대 북한의 소득 수준을 상대화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남북한 소득 수준에 대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은 이 시기 남북한 1인당 소득 수준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분석에 앞서 어떻게 산출한 것인가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1955년 시점의 남북한 소득 수준은 동일하다고 가정했습니다. 앞서 해방 시점에 북한 지역 소득 수준이 남한 지역의 거의 1.5배 수준에 이르렀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 남한의 소득 수준은 1.5배 혹은 그 이상 증가한 반면, 북한의 소득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를 종합해서 보면, 1955년 시점에 남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정한 것인 만큼, 오차가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연도별 소득은 1955년 시점의 소득과 앞서 소개했던 한국은행 연구진이 추정한 북한의 소득증가율을 이용하여 산출했습니다. 그림에는 남한의 소득도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매디슨 역사통계 2018년 버전에 수록된 값입니다.

매디슨 역사통계는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장기에 걸친 소득 수준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화면에 제시된 그로닝겐 대학교의 그로닝겐 성장과 발전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디슨 역사통계에는 북한의 소득에 대한 데이터도 있지만, 1955년 시점의 북한 소득 수준을 너무 낮게 잡는 등 문제가 있어 여기서는 앞서 소개해 드린 방식으로 새로 추계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남북한 소득 수준을 비교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남북한의 성장 추세가 뚜렷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1950년대 후반 빠른 경제성장을 달성했으나, 1960년대 들어와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림의 북한 소득 수준 변화 추세는 그러한 양상을 잘 반영해서 보여줍니다.

반면 남한의 경우,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소득증가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960년대 들어와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면서, 특히 1960년대 후반 들어 소득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1970년까지 남북한 소득격차가 좁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소득 수준이 남한에 비해서 더 높은 상황은 1970년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을 기준으로 보면 상상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후에도 남한의 소득 수준이 빠르게 상승하여 1970년대 초반 남북의 소득 수준은 역전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소득 수준을 더 많은 나라들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매디슨 역사통계에 제시되어 있는 145개 국가의 1인당 소득 수준과 앞에서 구한 북한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1960년과 1970년을 비교해 보았는데, 그림에는 북한의 소득, 146개국의 중위소득, 하위 25%에 해당하는 국가의 소득, 그리고 146개 국가 중에서 북한은 몇 위에 해당하는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순위를 보면, 1960년 북한은 146개국 중 73위였고, 1970년에는 83위로 10계단 하락했습니다. 1960년대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북한의 소득 순위가 하락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1960년대까지는 북한이 오늘날과 같이 아주 못사는 나라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계은행은 매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군을 분류해 발표하고 있는데, 북한은 1998년부터 계속해서 가장 소득 수준이 낮은 국가인 저소득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과의 비교 결과를 정리하면, 1960년대까지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 소득 수준도 높았고, 전 세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저소득 국가에 해당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꿔 말하면, 1960년대까지 북한은 그런대로 경제발전 수준이 나쁘지 않았지만, 지난 50여 년 사이 상대적으로 성장하지 못하여 현재는 저소득 국가 중 하나가 된 것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해방 직후부터 1960년대까지 북한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해방 직후 북한경제 상황을 보았는데, 당시에는 북한이 남한에 비해서 경제발전에 유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산업시설, 발전설비, 지하자원 등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지개혁, 산업시설 국유화를 시작으로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1950년대는 한국전쟁 이후 전후 복구 시기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습니다. 전후 복구 과정에서 북한은 '중공업 우선, 경공업·농업 동시 발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공업 투자에 집중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사회주의적 개조를 본격화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농업과 상공업 부문에서 협동화가 추진되었고, 1958년 말에 이르면 두 가지 협동화 모두 거의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1960년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195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핵심적인 특징 중 하나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금지, 또는 생산수단의 국유화를 추진했다면, 1960년대에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또 하나의 특징인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구축이 이루어졌음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였을까요? ‘대안의 사업체계’와 ‘계획의 일원화·세부화’였습니다. ‘대안의 사업체계’도입으로 기업을 지배인 대신 당비서가 주도하게 되었고, 생산에 필요한 자재·자금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의 일원화·세부화’도입으로 계획경제의 골격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950년~1960년대 북한의 경제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경제실적을 추정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북한은 1950년대 후반에는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가,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50년대 후반의 빠른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외연적 성장의 추진, 천리마 운동과 같은 대중운동의 전개와 원조를 통한 외부의 지원, 전후 복구라는 특수한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다고 했습니다.

반면 1960년대 들어와 성장률이 크게 하락한 것은 외생적 성장정책이 한계를 드러낸 데에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한계로 인해 내포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실패했고, 대중운동을 통해 혁명적 열기를 불러넣는 것도 한계가 나타난 데에다, 과도한 군사비 지출 부담에 시달린 것 등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북한은 1960년대까지는 남한에 비해서 높은 소득 수준을 유지했고, 국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현재와 달리 소득 수준이 중위권에 있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북한의 초기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북한경제의 변화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2**

##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Liberation to the 1960s

**2-1**

###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nd Economic Policy after the Liberation

Hello. I am Hong Jea Hwan and will deliver the lecture series called Past and Present of North Korean Economy. This is the second lecture about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Liberation to the 1960s'.

In the last lecture, we focused on what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are, and how socialist countries such as the USSR, China, and Vietnam pursued reforms to overcome those problems. So, we focused on studying basic knowledge before discussing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is lecture, we will look at the North Korean economy in more detail. We will discuss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liberation to the 1960s.

In this period, North Korea built the planned economic system. Through this lecture, you will be able to better understand how and in what form North Korea's socialist planned economy system was established.

Understanding how North Korea's socialist economy was formed will help you to understand upcoming lectures.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how the North Korean economic system was formed in the early days and how it has changed to understand today's North Korean economy. I hope you keep these points in mind when listening to this lecture.



Also, we will look at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during this period. During the period covered by this lecture, North Korea seemed wealthier than South Korea. However, it isn't easy to imagine if you see today's economic situation. Thus, we will examine how much North Korea was economically better than South Korea and why.

The first thing to look at is the North Korean economy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We need to examine the situatio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o check the initial economic conditions of North Korea.

Upon the liberation in 1945, which side had the higher income level, the North or the South? Considering the current situation, many would think that the southern area was wealthier because the two Koreas have a significant gap in economic power now.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level is less than 5% of South Korea's. I will talk about this again.

However, if you see the findings that researchers in Korean economic history estimated using statistics from the pre-liberation period, the northern area had a higher income level than the southern area.

This graph shows GDP per capita in northern and southern areas in the pre-liberation period. You can see that the income levels of the two sides were similar until the 1920s. Then, the gap widened after the 1930s. This is because the income level of the northern area rose rapidly compared to the southern area after the 1930s.

As a result, in 1943, the per capita GDP of the South was KRW 1.19 million, while that of the North was KRW 1.74 million. The GDP of the northern area was almost 1.5 times more than that of the southern area. We cannot know the exact economic situation in 1945 because statistics are only made until 1943, but I think that the gap remained quite similar in two years. So, we can estimate that the income level of the northern area was about 1.5 times that of the southern area upon the liberation in 1945.



Then, why did the income level rise rapidly in the North after the 1930s?

This is because Japan, which colonized Joseon at the time, built many large-scale heavy chemical factories in the northern area, especially in Hamgyeong-do, in the 193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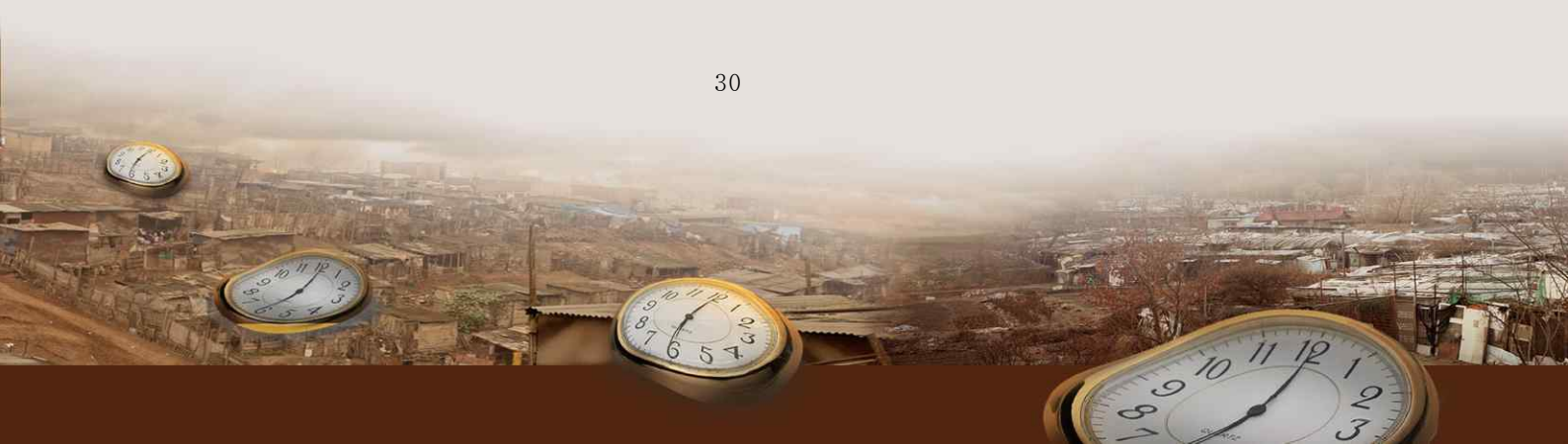
For example, Japan Nitrogenous Fertilizer Company established Joseon Nitrogen Fertilizer Company, which had the world's third-largest fertilizer production facility, in Heungnam, Hamgyeongnam-do.

If you divide the production volume of the heavy industry right before liberation by the side, the northern area accounted for 80%, and the southern region accounted for 20%. As for the production volume of the light industry, the north area accounted for 30%, and the southern area 70%.

How about agriculture? The southern area accounted for the most. To sum up, the northern area was dominant in heavy industry, and the southern area was dominant in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Due to the concentration of highly value-added heavy industry in the northern area, its economy grew faster than that of the southern area.

Why did Japan construct such large-scale industrial facilities in Joseon? The biggest goal must be to procure the materials necessary for war. Japan started the Manchurian Incident, the Sino-Japanese War, and the Pacific War in the 1930s, it was in need of military supplies and tried to produce some in Joseon.

Then, why did Japan build most of the new industrial facilities in the northern area? It is because the northern area had mor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underground resources than the southern area.





As shown in the figure, as of 1944, right before liberation, the North accounted for 96.4% of electricity generation, while the South accounted for 3.6%. This is because most of the power generation facilities were in the North. Also, major minerals necessary for the heavy chemical industry, such as coal, tungsten, and iron ore, were in the North.

Our review shows North Korea had better economic development conditions than South Korea during liberation. But, of course, it just means that North Korea was relatively better off than South Korea, and it does not mean that North Korea was advantageous for economic development.

First of all, the economic development level in colonial Joseon was not very high. Although there was some industrialization, the share of the industry was small in the overall economy, and near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Joseon suffered greatly from the several wars Japan started after the 1930s.

Also, the division of labor between Japan and Joseon was severed after the liberation. As the division of labor with Japan took up a high proportion before liberation, the impact was huge. In addition, the two Koreas also had to suffer from the broken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North and South since the Korean peninsula was divided soon.

As mentioned earlier, heavy industry developed in North Korea, and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developed in South Korea, creating a division of labor. The severing of these economic ties put a significant burden on both Koreas.

Under this circumstance, North Korea pursued the transition to a socialist planned economy system. The first step was land reform. You are well aware of the land reform in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North Korea carried out the land reform in early 1946 before South Korea. The land reform was in the form of uncompensated confiscation and free distribution.



‘Uncompensated confiscation and free distribution’ means that the land was taken away without compensation from landowners and distributed to the landless farmers for free. Tenant farmers who had rented other people’s land and paid high rent must have liked it very much.

The object of confiscation was the land owned by a landlord who owned more than 5 Jeongbo (49,586m<sup>2</sup>). Even when the landlord owned less than 5 Jeongbo, the land was confiscated if the landlord had given their land for tenant farming. Tenant farming may sound unfamiliar. It refers to lending land to farmers in exchange for rent.

The landlords whose land was confiscated without compensation must have been very dissatisfied. That could lead to conflict. To avoid disputes between landlords and farmers,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made the landlords who had their land confiscated move to other areas and received the distributed land. However, many landlords migrated to South Korea instead of staying in North Korea.

Back then, there were many tenant farmers and small-scale farmers who did both independent and tenant farming. This ‘uncompensated confiscation and free distribution’ land reform must have helped the Kim Il-sung regime in getting the North Korean people's support.

In 1946, the nationalization of key industries was also promoted, together with land reform. It confiscated and nationalized 1,032 factories, business sites, mines, power plants, and banks owned by Japanese and pro-Japanese groups. These accounted for 90% of industrial facilities at the time. That is, most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became state-owned immediately after the liberation. For your reference, I used the term ‘business site’, which is a North Korean term for a company.



Meanwhile, it did not confiscate companies owned by Koreans who were not pro-Japanese. They were generally small in size. At that time, commercial and industrial activities of individuals were allowed in North Korea. Thus, individuals could continue their commercial and industrial activities in non-confiscated industrial facilities.

In 1946, land reform and nationaliza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were implemented. Still, it is difficult to say that a socialist economic system was established.

In the last lecture, I said that the core of the socialist economy is to prohibit private ownership of production means. Of course, most of the industrial facilities were nationalized, but as you saw, some private commerce and business also existed. In addition, private ownership was granted for land distributed through agricultural land reform.

Therefore, it seems more appropriate to say that North Korea was entering a transitional stage toward a socialist economy through land reform and nationalization, rather than they set up a socialist economic system.

In 1947, the transition to the socialist economy was further advanced. First, a joint company of private businesses was greatly encouraged. It is a cooperative that combines several private companies, called a collaborative production company.

Private ownership of the production means was recognized in these joint production companies, but the joint companies should use the means of production together. Thus, mutual companies partially had socialistic characteristics.

Further steps were taken in the agricultural sector to create socialist cooperative farms. A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organization of several 'Sogyeori Group' in every village. 'Gyeori' refers to a plow drawn by a yoke of two oxen. People were encouraged to share cows in the Sogyeori Group. So, it was the common use of means of production, draft animals.



Meanwhile, North Korea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more actively from 1947. In turmoil before and after liberation, North Korea's industrial production in 1946 decreased by 71.7% compared to 1944. However, North Korea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grew rapidly between 1947 and 1949, and restored the production level before liberation in 1949.

How could the North Korean economy recover so quickly during this period? First, as seen earlier, North Korea's electricity situation was better, and it had more industrial production facilities than South Korea.

Second, the Soviet Union provided economic and technological aid. The USSR provided large-scale economic aid to North Korea until 1949. In addition, several Soviet technical advisors were stationed in North Korea for each industry.

So far, we have discussed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nd policie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fter a break, we will look at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1950s.





2-2

North Korean Economy in the 1950s:  
Transition to the Socialist Economy

Hello again. So far, we discussed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nd economic policies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Now, we will look at the North Korean economy in the 1950s.

As mentioned earlier, the North Korean economy was showing signs of recovery since 1947. However, North Korea started the Korean War which lasted for three years in 1950, and it drastically damaged the North Korean economy. The War was devastating to both Koreas.

First, let's look at the casualties. Although inaccurate, 1.65 million, including 550,000 North Korean soldiers and 1.1 million civilians, were estimated to be killed or missing during the Korean War.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at the time was about 10 million or less, so more than 15% of the people lost their lives or went missing during the war.

For your reference, the casualties of South Korea were about 1.15 million including 990,000 civilians and 160,000 soldiers. Two Koreas suffered from the death of about 3 million people. The Korean War was a great tragedy for both North and South Korea.

The material damage caused by the Korean War was also very serious. It is estimated that 8,700 factories and enterprises, 600,000 houses, 5,000 schools, and 10,000 hospitals and clinics were damaged in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severe human and material damage caused by the war, North Korea's industrial production was greatly reduced. As you saw, industrial production recovered its pre-liberation level in 1949 but was severely reduced again due to the Korean War.



Then how much production capacity did North Korea lose after the Korean War? This table summarizes the statistics on industrial production for 1949, 1951, and 1953. It shows the production level in 1951 and 1953, with the production capacity in 1949 set at 100. You can check how much North Korea's productivity decreased due to the Korean War.

If you see here, the production volume of North Korea was reduced by 64% in industry and 76% in agriculture in 1953 compared to 1949. The industrial production volume decreased to 47% in 1951 and then recovered. You can assure that the Korean War had a significant impact on North Korea's industrial production capacity.

The table also shows that the scale of damage varies greatly by the industrial sector. For example, the production volume of the fuel industry and metallurgical industries production volume, which extract metal from ore, dropped to 10% of the pre-war level. The industrial production base was almost destroyed, literally. On the other hand, the production of the spinning industry increased significantly. The same goes for machine building and metal processing.

Finally, the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July 1953. The truce has continued to this day for 70 years since then. After the Armistice Agreement, North Korea embarked on postwar recovery. From 1954 to 1956, North Korea promoted a thre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The plan aimed at restoring industrial production to the pre-war level in 1949 through post-war recovery projects.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during the post-war recovery period had two characteristics. One was the priority of heavy industry policy, and the other was the transition to a socialist economy. Let's look at them one by one.



First, let's discuss the promotion of the heavy industry-first policy. At the time, the official North Korean policy was "Heavy industry first and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At a plenary meeting of the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held in August 1953 to determine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post-war recovery, Kim Il-sung made the following remarks.

"In post-war economic construction, we should move toward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while prioritizing recovery and development of the heavy industry."

The wording could be clearer. He mentioned the priority on the heavy industry and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but "priority" and "simultaneous" do not go well together. So, despite the wording, what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intended was the policy that prioritized heavy industry. This is evident just by looking at how much the industrial investment took up in the national budget.

Today, North Korea rarely releases its official statistics. So researchers have difficulty studying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understanding its reality. In terms of North Korea's economic growth rate, we generally use the estimate by the Bank of Korea instead of the rate announced by North Korea. You will see this later.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published some statistics until the early 1960s. So we can check statistics in the 1950s. From 1954 to 1956, investment in the heavy industry accounted for more than 80% of North Korea's industrial investment. In other words, the investment in the light sector accounted for less than 20%. The amount invested in agriculture also fell far short that invested in heavy industry.





Contrary to the remark, 'heavy industry first and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North Korea did prioritize heavy industry. Then, why did Kim Il-sung speak so vaguely?

It was conscious of the resistance of the North Korean people. Would they welcome the heavy industry-first policy? No, they would not. North Korean people would have expected to restore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first because it was difficult to make a living after the war. That's why the ambiguous wording was used to give the impression that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were also regarded as important.

Now, let's discuss the second characteristic of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the transition to socialism, during the post-war recovery period. Of course, we already checked that the transition to socialism was made gradually in agriculture, commerce, and industry before the Korean War in the late 1940s.

As for agriculture, private ownership of distributed land was allowed, but transitional measures were taken to realize socialist cooperative farms. In addition, most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had already been nationalized. There were some private commerce and industry, but it was encouraged to convert them into cooperatives.

These movements became stronger in promoting post-war recovery after the Korean War. Of course, the entire country was devastated by the war, but this was advantageous to the North Korean government when pushing the transition to a socialist economy. Why?

It would have been difficult for individuals to restore rice fields or irrigation facilities damaged during the war. All the residents had to recover them together, and the North Korean authorities took advantage of this to promote cooperative farming. The promotion of cooperative farming was also included in the three-year plan for national economic recovery and development.





There were three types of cooperative farming. However, nearly 80% of collective farming chose type 3, the most socialistic of the three types. Under type 3, people combine the land, livestock, and farm equipment in the cooperative farm, work together, and receive the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amount of labor.

Earlier, while looking at the late 1940s, I mentioned the 'Sogyeori Group'. If you compare cooperative farming to this 'Sogyeori Group', you can see that socialist transformation progressed further, because the 'Sogyeori Group' used the drafting animals together, but did not combine the land. Cooperative farming not only used the drafting animals together but also integrated the land.

Still, most of the land was under the joint ownership of cooperative members at this stage. This is called 'cooperative ownership'. Yet nationalization of land, or 'people's ownership' of land, was only realized partially.

Cooperative farming began in 1954 and about 80% was completed by the end of 1956. In the process, some farmers refused to join the cooperative, and some joined and then withdrew. Despite the turmoil, by August 1958, all farmers eventually joined the cooperatives, completing cooperative farming. Up until now, the basic framework of the cooperative farm system remains the same to this day despite some changes.

Meanwhile, cooperativeization was promoted not only in agriculture but also in private commerce and industry. Before the Korean War, private commerce and industry accounted for about 10% of production. However, private commerce and industry shrank during the war, and it accounted for much less after the w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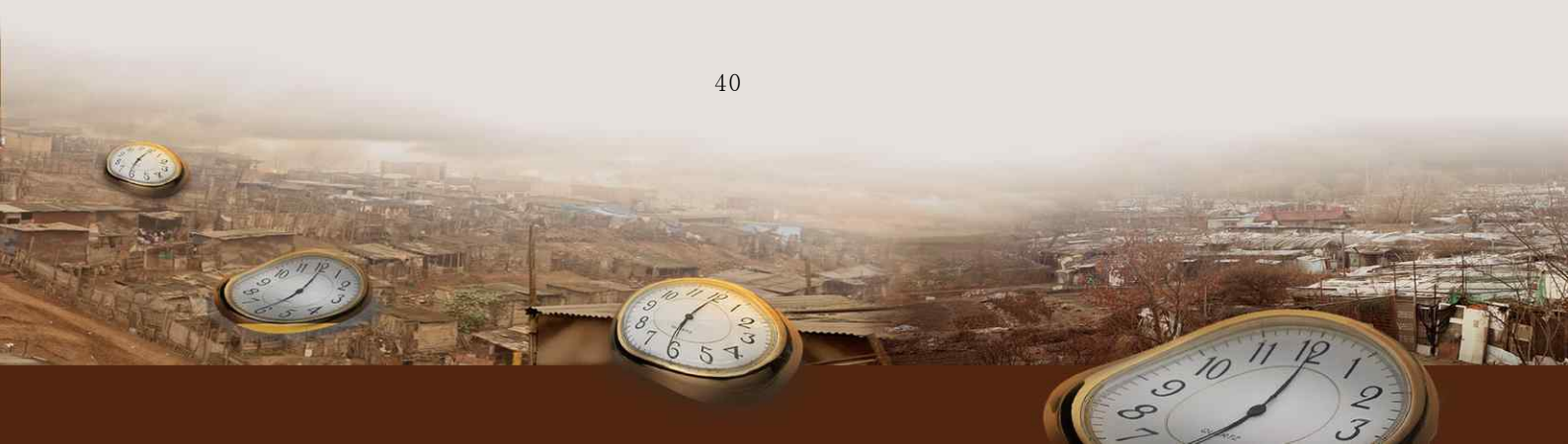
So cooperativeizing private commerce and industry was relatively smooth without much pain unlike cooperative farming, and it was completed in 1958 together with cooperative farming.



# 북한경제의 어제와 오늘

홍제환 교수

So far, we discussed how the transition to a socialist economy was finalized through the post-war recovery process in the 1950s in North Korea. After a break, we will look into establishing a centralized planned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in the 1960s.



2-3

North Korean Economy in the 1960s:  
Establishment of Centralized Planned Economic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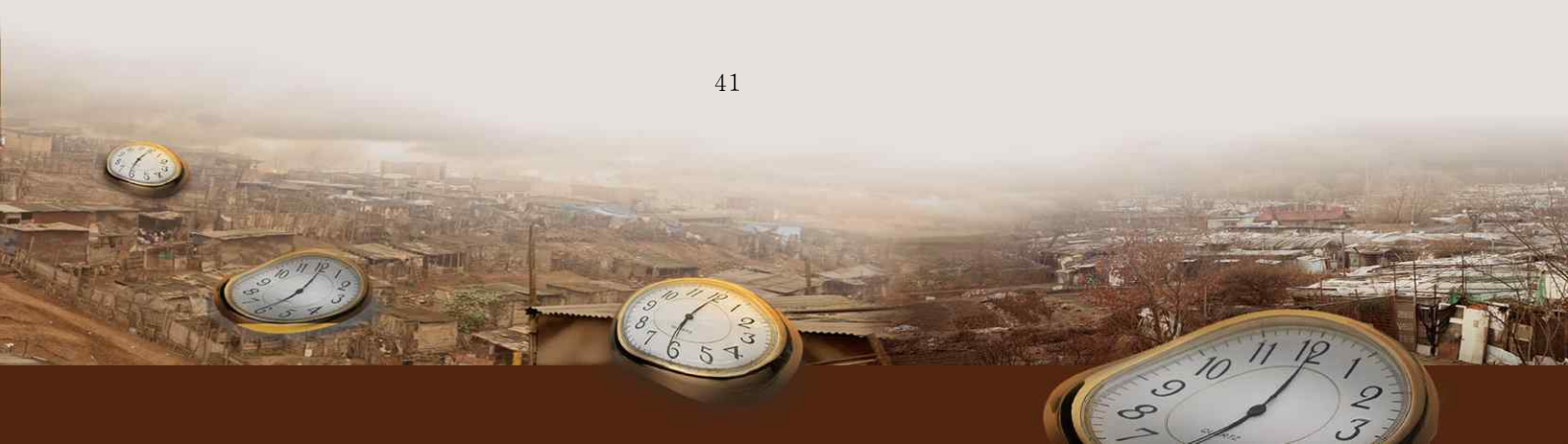
Hello. So far, we have discussed the transition to a socialist economy in the 1950s in North Korea. Now, let's discuss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entralized planned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in the 1960s.

As discussed, North Korea sought a transition to a socialist economy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until the 1950s. In the agricultural sector, it built conditions for the transition to a socialist economy through land reform immediately actively pushed cooperative farming in the post-war recovery process and finally completed it in 1958.

In the commerce and industry sector, most industries were nationalized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ere were some private commerce and industry, of which cooperativeization was also promoted, and cooperativeization was also completed in 1958.

In the first lecture, I mentioned two key characteristics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First is the prohibition against private ownership of the production means and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In the 1950s, North Korea established a system that did not allow private ownership of the means of production.

In the 1960s, the centralized planned economy, the other pillar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was established. All decision-making authority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such as production elements like labor and capital, and where and how much to distribute goods, was given to the state. Although this system has been damaged a lot, the big framework remains to this day.



Now, let's discuss how North Korea's economic management system was set up through the 1960s, focusing on the corporate sector.

The two pillars of North Korea's centralized planned economic system are 'Dae-An working system' and 'unification and detailing of plans'. Let's first look at the 'Dae-An working system'.

First, I need to explain the term 'Dae-An working system'. This term refers to the corporate management measures developed when Kim Il-sung visited and provided field guidance to Dae-An Electric Factory in Nampo, Pyongannam-do.

To understand this, you need to know about North Korean factories and the enterprise management system.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o the 1950s, the management system of North Korean factories and enterprises was the 'single management system' by the manager. The manager of corporate sites managed and operated the overall production activities and was responsible for the results.

Even so, this does not mean that the manager could make decisions independently. In socialist countries, the party makes all the policy decisions. In the case of North Korea, that is the Korean Workers' Party (KWP).

It was the same with corporates at the time. The autonomy of managers was relatively greater than that of later years, and it was not stipulated that managers should receive "guidance" from the party, but the party did give guidance to managers through the party organization at each company.





Then, how is the 'Dae-An working system' different from the 'single management system'? The 'Dae-An working system' is where the factory's party committee leads a company's decision-making process instead of a manager. The party committee comprises the secretary, manager, chief engineer, and working group manager. Managing and operating companies' production activities through the party committee is collective guidance.

In other words, the introduction of the 'Dae-An working system' made the party committee decide all matters related to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company through collective discussion. Also, the party committee bears the final responsibility.

The figure shows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rganization system of factories and companies in North Korea. In North Korea's corporate management system, the party committee acts 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and the manager and party secretary are below that.

The manager was in charge of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related to finance, labor, material supply, and rear supply projects corresponding to workers' welfare. The party secretary was in charge of guiding the workers' activities in political organizations. In the figure, you can find a chief engineer below the manager, and he/she was in charge of directing and managing the production site and overseeing the overall production process. As I mentioned, the chief engineer is also a member of the party committee.

However, even though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rganization system of factories and companies in North Korea was structured as this, and the party committee was the highest decision-making body, the party secretary led the company's decision-making. And all management activities of the company were under the party's control. This is because the party secretary, who chairs the party committee, had the authority to make decisions on corporate management.



In 'Dae-An working system', the manager had to consult with the party secretary on all issues related to the company's operation. The manager also had to report all important issues in company management to the party secretary.

In summary, compared to the 'single management system' until the 1950s, Dae-An working system weakened the authority of managers and made the party secretary make decisions instead of the manager.

Now, who would have more expertise in business management, the manager or the party secretary? The manager will have more expertise, of course. In addition, the party secretary is likely to consider political factors more than economic factors in the corporate decision-making process. Thus, this measure of having the party secretary lead the company's decision-making instead of the manager harmed the company's operation. We will come back to this later.

Now, we know that the party secretary, instead of the manager, started to make decisions in the company in the 'Dae-An working system'. This 'Dae-An working system' also brought changes in the system to supply materials and funds necessary for production.

Previously, companies had to procure materials on their own. However, under the 'Dae-An working system', the Cabinet Secretaries or the management bureau became responsible for supplying materials to enterprises. This is called the 'centralized material supply system'. Along with this, the 'single fund supply system' was established. The government became responsible for supplying the funds necessary for company operation.

So far, we have examined the 'Dae-An working system'. The key point is that there were changes in the party secretary-centered structure and the supply system of production materials and funds.



I mentioned that the two pillars of North Korea's centralized planned economic system are 'Dae-An working system' and 'unification and detailing of plans'. Now, let's discuss the 'unification and detailing of plans'.

It was introduced in 1965. 'Unification of plans' refers to establishing a planning system so that all economic activities are systematically conducted by order of the central planning authority. It means that all financial activities are ordered and controlled central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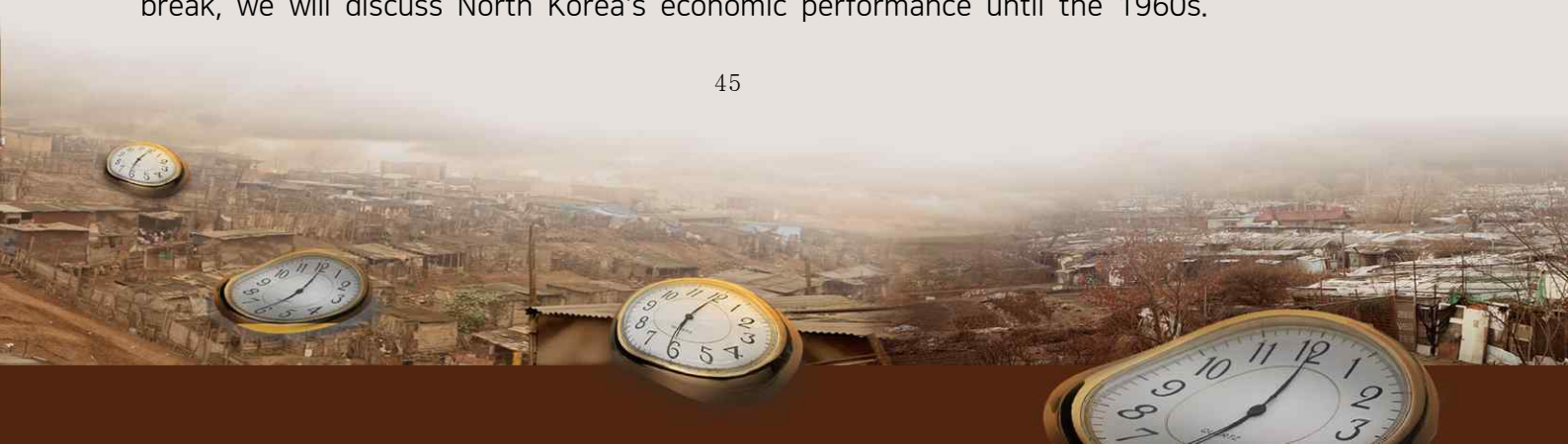
'Detailing of plans' literally means making as detailed plans as possible. This is to ensure that the economy works well between sectors, businesses, and regions through detailed plans.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ried to prepare and implement plans more systematically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the planned economy system, thereby overcoming the problems identified in operating the planned economy. These attempts were not very successful. We will come back to this later.

So far, we looked into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planned economy in the 1960s by focusing on the two pillars, 'Dae-An working system' and 'unification and detailing of plans'.

This concludes the discussion on how North Korea established its socialist planned economy from the mid-1940s to the 1960s. We examined how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ndled challenges, such as prohibiting private ownership of production means and establishing a centralized planned economy, the core of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Then, how was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orth Korea at that time? After a break, we will discuss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until the 1960s.





2-4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in the 1950s and 1960s

Hello again. So far, we discussed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entralized planned economic system in North Korea in the 1960s. Now, we will look at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in the 1950s and 1960s.

In the 1950s and 1960s, North Korea not only established a socialist planned economy but also pursued rapid economic growth. Then, how was the performance?

I already mentioned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not released statistics on the economic growth rate since early 1960. So it is not easy to grasp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Still, there are fragmentary data announced by North Korea and studies that estimated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using limited data. So we can roughly check the status.

Let's first look at the economic growth rate announced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North Korea announced the average for each period. For your reference, the way socialist countries calculate the economic growth rate is different from the generally used method. You need to consider that when looking at this graph.

The average annual economic growth rate reached 30% in the mid-1950s and exceeded 20% in the late 1950s. The rate in the 1960s was still high although it was lower than in the 1950s.

However, these statistics are far from reality. Let's assume that the income levels of North and South Korea were similar in the mid-1950s. I will explain the reason for this assumption later. If you apply the growth rate announced by North Korea to that,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in 1980 should be three times that of South Korea. This is completely different from what we know. We will look at North Korea's economic situation around 1980 in the third lecture.





Now, let's look at the studies that estimated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This graph shows the findings of researchers at the Bank of Korea. The statistics from 1957 are presented. The economic growth rate in the late 1950s is estimated to be 13.6%. It is lower than the 21% announced by North Korea but still high. The growth rate in the 1960s is about 4%. This is much lower than the rate announced by North Korea.

Which would be more realistic, the statistics announced by North Korea or the studies by the researchers at the Bank of Korea? As I mentioned, the statistics reported by North Korea are far from reality. In contrast, you can see a sharply dropped growth rate in the estimates by the Bank of Korea researchers, which seems closer to reality.

Of course, these estimates may not be accurate either. The data is so limited to estimate the economic growth rate accurately. Still, you can grasp the long-term trend of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is. From now on, we will proceed with the discussion based on the estimates by the Bank of Korea researchers.

As you saw earlier, the North Korean economy showed rapid growth in the late 1950s, but the growth rate dropped significantly in the 1960s. We can come up with two questions here. First, how could North Korea achieve rapid growth in the late 1950s? Second, why did the growth rate drop in the 1960s? Let's look into these.

First, let's examine how North Korea achieved high growth in the late 1950s. For the economy to grow, production elements such as labor and capital must be increased or productivity must be improved. With these in mind, let's find the causes of economic growth.



The socialist planned economy is better regarding an increase in the input of production elements. It can mobilize labor, put it into production, and greatly increase capital investment through compulsory savings. Most socialist countries achieved high growth in the early days by increasing inputs, called external growth.

North Korea also implemented this policy. For example, the Korean War caused a shortage of male workers, so North Korea implemented a policy of mobilizing the female labor force in the mid-1950s. In addition, compulsory savings were forced by regulating wages, paying patriotic rice, forced savings, and implementing currency reform. As a result, North Korea's labor input and capital investment increased.

In addition, the public movem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lso had an impact. A representative example of a public movement is the Chollima Movement, which began in the late 1950s in North Korea. These public movements to infuse revolutionary enthusiasm usually succeed in attracting public participation in the early days of socialist countries, and these movements also positively affected the growth in North Korea.

Aid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example, North Korea received large-scale capital and technology aid from socialist countries such as the USSR, China,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elped economic growth. Another important factor is that it was a post-war recovery period. It is quite common to achieve rapid growth while recovering from the war.

To sum up,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late 1950s was driven by external growth through increased labor and capital input, promotion of public movements, including the Chollima Movement, external support through aid, and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postwar recovery.



Then, why did the growth rate drop so drastically in the 1960s? First of all, you need to know that many socialist countries face a sharp drop in economic growth after achieving rapid growth in the early days. In other words, this is related to the problems of the socialist economy.

The biggest reason is that you cannot drive external growth continuously. You can keep the growth rate high through the increase in labor or capital input in the early days, but you cannot keep it for a long time. Thus, external growth through increased input of production factors inevitably reaches its limit after a certain time, and after that, you need to pursue internal growth by improving productivity.

However, socialist countries are likely to fail in promoting internal growth because there is no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and no incentives are given to managers and workers to increase productivity. North Korea also faced these difficulties gradually in the 1960s.

It is also difficult to sustain the effect of attracting public participation through public movements. When the initial revolutionary enthusiasm subsides in socialist countries, social norms and discipline appear to be weakening, and such signs appeared in North Korea in the 1960s.

Also, the military expenses due to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would have acted as a factor limiting continued economic growth. Both South and North Korea had this burden, but the population of North Korea was smaller. Thus, even though the two Koreas spent the same amount of military expenditure, the military expenditure per capita was greater in North Korea.

To sum up, North Korea's external growth policy gradually showed its limits in the 1960s but failed to promote internal growth due to the limits of the socialist economy. The effect of public movements was weakened, and excessive military expenditure put continuous pressure, resulting in a significant drop in the growth rate.





Lastly, let's look at North Korea's income level from the 1950s to the 1960s in a relative sense. First, let's compare the income levels of North and South Korea.

The figure shows the comparison of per capita income in North and South Korea. Before analyzing this, let me explain how it was calculated. I assumed the income levels of North and South Korea were the same in 1955. I mentioned that the income level of North Korea was almost 1.5 times that of South Korea at the time of liberation.

After the liberation, South Korea's income level increased by 1.5 times or more, while North Korea's income level is likely to have stayed the same. Taking all of these together, the per capita income levels of the two Koreas in 1955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Of course, since this estimate is made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various circumstances, there is plenty of room for error.

As for North Korea's yearly income, I used income in 1955 and the income growth rate estimated by the Bank of Korea researchers introduced earlier. The graph also shows the income level of South Korea, and this is the value recorded in the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2018.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shows changes in income levels over a long time in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you can download it at the website of the Groningen Growth and Development Center, the University of Groningen.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also has data on North Korea's income, but the estimate of North Korean income level in 1955 is too low. That's why I used a new estimate calculated as explained here.

Now, let's go back to the graph. You can see that the growth trends of the two Koreas are in stark contrast. I mentioned that North Korea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late 1950s, but the growth rate slowed significantly in the 1960s. The graph clearly shows the changes in North Korea's income level.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 did not show much growth in income level in the beginning. The economic growth rate of South Korea started to rise in the 1960s and rose sharply in the late 1960s.

As a result, the income gap between the two Koreas was narrowed by 1970. Still, North Korea's income level was higher than that of South Korea until the 1970s. It's hard to imagine if you consider the current situation. For your reference, South Korea's income level rose rapidly after this, and the income level of South and North Korea reversed in the early 1970s.

Now, let's compare North Korea's income level to that of other countries. The graph compares the per capita income level of North Korea to that of 145 countries presented in the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It shows the data for 1960 and 1970. The graph shows the income of North Korea, the median income of 146 countries, the income level of the bottom 20% countries, and where North Korea ranks among 146 countries.

If you look at the rank, North Korea was 73rd out of 146 countries in 1960 and it fell 10 places to 83rd in 1970. Although North Korea's income rankings declined in the 1960s as growth slowed, you can also find that North Korea was not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like now until the 1960s.

For your reference, the World Bank classifies and announces country groups based on income level every year, and North Korea has been classified as a low-income country since 1998.



Let me sum up the comparison results. Until the 1960s, North Korea had a higher income level than South Korea and did not belong to a low-income country group compared to the rest of the world. In other words, North Korea showed relatively good economic development until the 1960s but failed to grow in the past 50 years, and now it is one of the low-income countries. Why did the situation worsen? We will discuss this in the next lecture.

Let's summarize what we have learned. In this lecture, we discussed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liberation to the 1960s.

We first examined the North Korean economy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and North Korea had favorable condi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compared to South Korea. This is because large-scale industrial facilities, power generation facilities, and underground resources were concentrated in North Korea. We also checked that transition to a socialist planned economy had been pursued through policies like land reform and nationalization of industrial facilities.

We focused on the 1950s, the post-war recovery period after the Korean War. Although North Korea advocated 'heavy industry first and simultaneous development of light industry and agriculture', it focused on investing in heavy industry. I also emphasized that the transition to a socialist economy became in full swing in this period. Cooperativeization was promoted in agriculture and commerce and industry, both were almost finalized by the end of 1958.

Then, we moved on to the 1960s. Then, North Korea pursued one of the key features of the socialist economy, the prohibition of private ownership or nationalization of the production means in the 1950s, and the other key feature, the establishment of a centralized and planned economy.



What was the core? They were 'Dae-An working system' and 'unification and detailing of plans'. Through 'Dae-An working system', the party secretary took the lead instead of the manager, and the government became responsible for supplying materials and funds necessary for production. 'Unification and detailing of plans' formed the framework of the planned economy.

Lastly, we examined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in the 1950s and 1960s. According to studies that estimated North Korea's economic performance, North Korea showed rapid growth in the late 1950s, but the growth rate declined significantly in the 1960s.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late 1950s was driven by a combination of external growth through increased labor and capital input, promotion of public movements including the Chollima Movement, external support through aid, and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postwar recovery.

On the other hand, the significant decline in the growth rate in the 1960s was because North Korea's external growth policy gradually showed its limits, and it failed to promote internal growth due to the limits of the socialist economy. The effect of public movements was weakened, and excessive military expenditure put continuous pressure, resulting in a significant drop in the growth rate.

Still, North Korea maintained a higher income level than South Korea until the 1960s, and international comparisons confirmed that it was one of the middle-income countries, unlike today.

I think you now know the economic situation of North Korea in the early days. Let me end this lecture here. In the third lecture, we will discuss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from the 1970s to the 1990s. I'll see you in the next lecture.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2周

解放后-1960年代的朝鲜经济

2-1

解放后朝鲜的经济状况和经济政策

各位同学，大家好。我是主讲人洪制焕。 第二次课将以“解放后-1960年代的朝鲜经济”为主题展开。

上节课我们学习了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特征和存在的问题,并了解了前苏联、中国、越南等社会主义国家为了解决这些问题而实施的改革。可以说,上次讲座是正式学习朝鲜经济之前的背景知识的积累。

从这次讲座开始，我们将更具体地了解朝鲜经济。本节课讲的是解放后到20世纪60年代的朝鲜经济。

这个时期可以说是朝鲜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形成时期。因此,我认为通过这次讲座的学习,大家对朝鲜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构成会有更深刻的理解。

了解朝鲜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构成将有助于后续课程的学习。因为了解朝鲜经济体系原型的形成和变化对理解当今时代的朝鲜经济来说非常重要。希望大家听讲座的时候留意这一点。

与此同时，我们还将学习朝鲜在这一时期的经济业绩。在这次课所讲述的时期里，朝鲜的生活好于韩国。 从今天的情况来看,有难以理解的一面。 那么，我们来分析一下过去朝鲜在经济上究竟比韩国强多少，以及其原因等。

首先要了解的是解放后朝鲜的经济状况。了解解放后的情况是为了确认朝鲜经济的初始条件。

1945年解放之时，今天的朝鲜和今天的韩国所对应的地区中，哪一方的收入水平更高呢？从现在来看，很容易认为一定是韩国更高。 因为现在南北的经济实力差距悬殊。 在以后的课堂上也会提到,朝鲜的人均收入水平还不到韩国的5%。



但是,韩国经济史领域的研究者们利用解放前的统计进行推算的结果显示, (1945年解放之时) 朝鲜 (的收入水平) 高于韩国。

图片显示的是解放前南北朝鲜人均GDP的趋势。从图中可以看出,截至20世纪20年代,两个地区的收入水平大体相当。但是20世纪30年代以后,差异开始扩大。这是因为20世纪30年代以后,与韩国相比,朝鲜的收入水平增长较快。

结果是1943年韩国人均GDP为119万韩元,而朝鲜则达到了174万韩元。朝鲜几乎是韩国的1.5倍。统计截止到1943年,2年后的1945年的情况很难知晓,但我认为这期间的差距不会发生太大变化。也就是说,1945年解放当时,朝鲜的收入水平大约可推测为韩国的1.5倍。

那么20世纪30年代以后朝鲜收入水平快速上升的原因是什么呢?

这是20世纪30年代,当时统治朝鲜的日本在朝鲜地区,特别是咸镜道地区建设很多大型重化工厂的成果。

例如,一家名为日本氮肥株式会社的日本企业,在咸镜南道兴南地区成立了当时拥有世界第三大化肥生产设备的朝鲜氮肥株式会社。

其结果便是,解放前重工业产值按地区划分的话,朝鲜占80%,韩国占20%,朝鲜地区明显更多。相反,轻工业产值中,朝鲜占30%,韩国占70%,韩国占比更高。

农业怎么样呢?还是韩国更占优势。综上所述,重工业是朝鲜占优势,而轻工业和农业则是韩国更占优势,20世纪30年代以后,附加价值规模更大的重工业集中在朝鲜地区,带来的结果便是朝鲜经济比韩国增长更快。

日本在朝鲜建设如此大规模的产业设施的目的是什么呢?也许最大的目的就是筹措战争所需的物资。进入20世纪30年代以后,日本接连发动了满洲事变、中日战争、太平洋战争,需要大量的军需物资,其中一部分是想在朝鲜生产筹措。



那么为什么偏偏在朝鲜集中建设新的产业设施呢？可能是因为朝鲜的发电设备和地下资源比韩国丰富。

如图所示,以解放前的1944年为基准,朝鲜的发电量占96.4%,而韩国占3.6%。大部分发电设备都集中在朝鲜。另外,重化工业所需的煤炭、钨、铁矿石等主要矿产都集中在朝鲜。

从目前所学内容来看,解放以后,与韩国相比,朝鲜具备了有利于经济发展的条件。当然,与韩国相比毕竟只是相对有利,从绝对标准来看,并不是说朝鲜拥有非常有利于经济发展的条件。

首先殖民地朝鲜的经济发展水平不是很高。虽然实现了工业化,但工业在整个经济中所占的比重并不高,20世纪30年代以后,日本帝国主义接连发动的战争给殖民地末期的朝鲜经济带来了巨大的困难。

另外,与日本建立的经济分工关系也随着解放的到来而中断。解放前与日本的经济分工关系占很大比重,可以说其影响很大。而且紧接着发生的南北分裂,南北之间的分工关系也随之断绝。

正如前面所说,朝鲜发展重工业,韩国发展轻工业和农业,南北双方之间形成了分工关系。这种经济关系的断绝对南北双方都造成了相当大的负担。

在这种环境下,朝鲜推进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为此,最先着手进行的是土地改革。大家应该很清楚解放后韩国实行了土地改革。1946年初,朝鲜比韩国更早实施了土地改革。土地改革是以无偿没收、无偿分配的形式进行。

所谓无偿没收、无偿分配,是指不给土地所有者任何补偿就收回土地,无偿给没有土地的农民分地。一直以来花高额租金租借土地耕种的农民应该非常高兴。

没收对象是拥有5垧(换算后为1.5万坪)以上土地的地主。即使地主拥有不到5垧的农地,如果农地全部租赁出去的话,也包括在没收对象之内。租种这个词可能有些陌生,是指收取租金后把土地借给农民耕种。





像这样没有得到任何补偿就被没收土地的地主们应该会有很多不满。这种不满可能便会导致矛盾。所以朝鲜当局为了避免地主和获分土地的农民之间的矛盾,让被没收土地的地主们移居到其他地区,并为其分配土地。但是很多地主没有留在朝鲜,而是移居到了韩国。

当时的农民,尤其是租种或在自己的土地上耕种和租种同时进行的佃农、自耕农,所占比重较高。因此,以无偿没收、无偿分配方式进行的土地改革措施,在提高朝鲜居民对金日成政权的支持上起到了不小的帮助。

进行土地改革的1946年,还采取了将主要产业国有化的措施。日本人和亲日派拥有的1032家工厂、企业、矿山、发电站、银行等被没收、国有化。这相当于当时90%以上的产业设施。也就是说,大部分产业设施一解放就变成了国家所有。作为参考,使用了“企业所”一词,在朝鲜这样称呼企业。

相反,非亲日派的朝鲜人所拥有的企业未被没收。但是他们的企业规模略小。当时在朝鲜也允许个人从事工商业活动。因此,在未被没收的产业设施中,个人可以持续进行工商业活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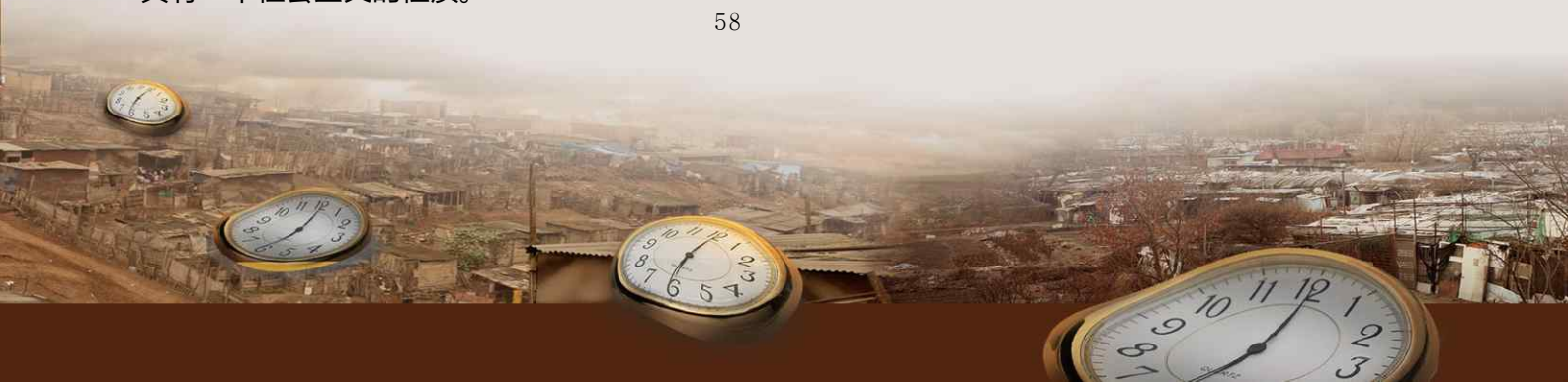
如上所述,(朝鲜)1946年实现了土地改革和产业设施国有化。但是,很难认为社会主义经济体系是由此建立起来的。

之前我们讲过,社会主义经济体制的核心是禁止私人拥有生产设备。虽然产业设施大部分被国有化,但是如大家所见,也存在一部分个体工商业。此外,对于农业部门来说,通过土地改革分配的土地,私人所有权得到了认可。

因此,与其说通过土地改革和产业设施国有化,朝鲜构建了社会主义经济体制,不如说是进入到推行社会主义经济体制的过渡阶段更合适。

1947年,向社会主义经济体制的过渡有了进一步的进展。首先,积极鼓励个体工商户的合作。将几家个人企业合并,以合作团体的形式建立起来。这种组织叫做生产合作社。

生产合作社也承认私人拥有生产资料。但是合作社共同使用这些生产资料。因此可以说合作社具有一半社会主义的性质。





农业部门也采取了进一步的措施，即创建社会主义集体农场。每个村都组织了几个“双套牛犁杖班”，就是一个典型的例子。“双套牛犁杖”是指两头牛牵的犁。在双套牛犁杖班内，牛可以共同使用。即，力畜这种生产方式可以共同使用。

另一方面，朝鲜从1947年开始更加积极地推进经济发展。在解放前后的混乱中，朝鲜1946年的工业生产比1944年减少了71.7%。但是正式推进经济发展后，1947年至1949年期间经济增长迅速，1949年重新恢复到解放前的生产水平。

朝鲜在这个时期经济快速恢复的原因是什么呢？首先，正如之前所看到的，朝鲜的电力情况很好，产业生产设施比韩国多。

另一种可能是苏联在经济和技术上提供了援助。1949年之前，苏联向朝鲜提供了大规模的经济援助。不仅如此，各产业还让多位苏联技术顾问常驻朝鲜。

本节课我们学习了解放后朝鲜的经济状况和经济政策。下一节课我们将分析20世纪50年代的朝鲜经济。



2-2

1950年代的朝鲜经济：向社会主义经济转变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解放后朝鲜的经济状况和经济政策。本节课我们将分析20世纪50年代的朝鲜经济。

正如前面所说,朝鲜经济自1947年以后呈现出恢复趋势。但是1950年朝鲜发动了持续3年的朝鲜战争之后,朝鲜经济再次大幅萎缩。战争给南北双方带来的伤痕都很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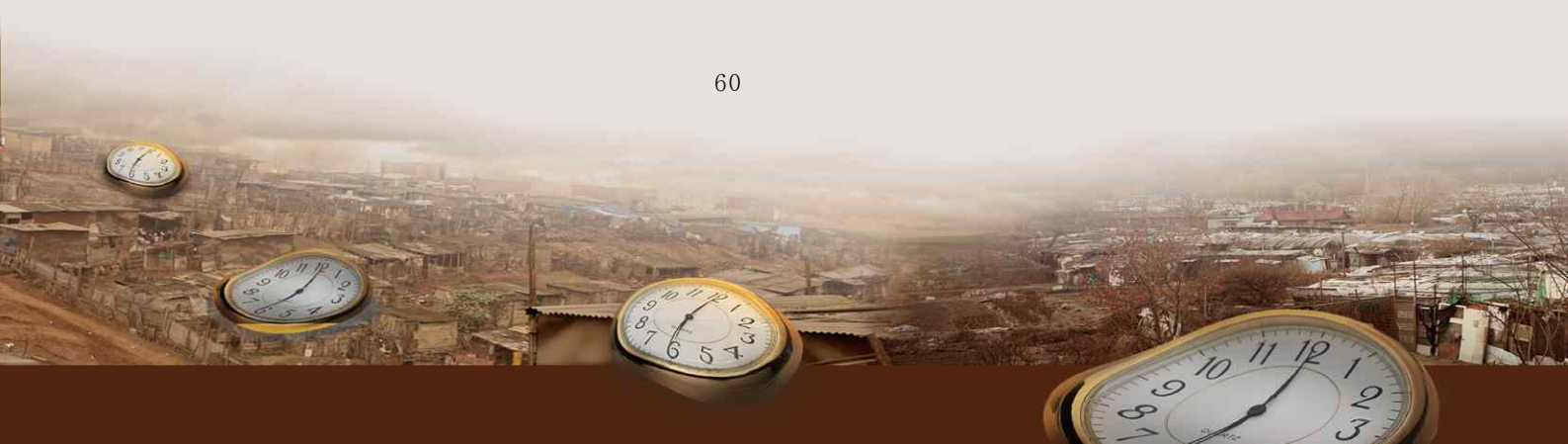
首先来看一下人员伤亡规模。虽然不是很准确,但据推测,朝鲜战争期间共计约165万人死亡或失踪,其中朝鲜军人55万、平民110万。据推测,当时朝鲜人口不到1000万,15%以上的人在战争中丧生或失踪。

作为参考,韩国的人员伤亡规模约为115万人,其中包括99万平民、16万名军人。南北双方共计约300万人丧生。朝鲜战争对韩朝双方来说都是浩劫。

朝鲜战争造成的物质损失也很大。据推测,朝鲜的8,700家工厂和企业、60万户住宅、5,000多所学校、1万多家医院及诊所等遭受损失。像这样,战争使人力、物力蒙受巨大损失的后果是,朝鲜的产业生产大幅减少。正如之前所看到的,1949年产业生产规模恢复到了解放前的水平,但因为朝鲜战争再次严重缩减。

那么朝鲜战争使朝鲜的生产能力降低了多少呢?图表是1949年、1951年和1953年工业生产的统计数据。把1949年的生产力规模设为100,图表中显示了1951年和1953年的生产力水平。利用这些可以确认朝鲜战争导致朝鲜生产力缩减了多少。

如大家所见,1953年朝鲜的产值与1949年相比,工业和农业分别减少了64%和76%。工业产值在1951年减少到47%后又再次恢复。可以确认的是,因为朝鲜战争,朝鲜的产业生产能力受到了相当大的冲击。



从表中可以看出,各工业部门的损失规模有显著区别。燃料工业或从矿石中提取金属的冶金工业,其产值已降至战争前的10%。事实上工业生产基础几乎处于被破坏的状态。相反,战争中纺织工业的生产反而大幅增长。机械制造、金属加工业也是如此。

1953年7月签订了停战协定。此后停战状态一直持续到70年后的今天。签订停战协定后,朝鲜开始战后重建。朝鲜从1954年到1956年,推行了“国民经济恢复发展三年计划”。该计划旨在通过战后重建工作,将工业生产恢复到战争前的1949年的水平。

战后重建工作推进时期,朝鲜经济政策有两大特征。一是重工业优先政策的推进,二是社会主义改造的全面展开。现在让我们逐一分析研究。

首先来看一下重工业优先政策的推进。当时朝鲜正式提出了“重工业优先,轻工业和农业同时发展”。1953年8月,为决定朝鲜战后重建方向而召开的党中央委员会全体会议上,金日成做了如下发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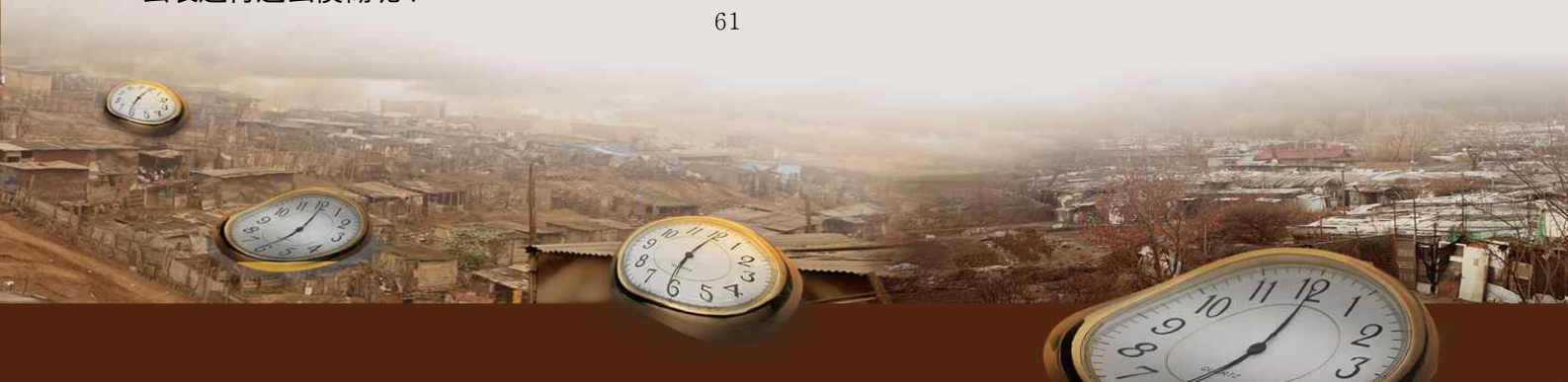
“在战后经济建设中,我们要在保证重工业先恢复发展的同时,朝着轻工业和农业同时发展的方向前进。”

但是表达有些模糊。以重工业为优先,轻工业和农业也同时发展,“优先”与“同时”一同使用感觉很别扭。虽然如此,但可以看出朝鲜当局的实际意图是优先发展重工业。看国家预算中工业投资额的构成,就一目了然了。

如今,朝鲜几乎没有正式统计。所以朝鲜经济研究者很难研究朝鲜经济并掌握其本质。尽管以后能看到,但朝鲜的经济增长率也不是朝鲜公布的数值,一般使用的是韩国银行的估算值。

直到20世纪60年代初期,朝鲜当局在一定程度上发表了统计结果。因此,可以确认20世纪50年代的统计,1954年-1956年朝鲜工业投资额中重工业投资额所占的比重超过了80%。换句话说,轻工业投资额的比重还不到20%。用于农业投资的金额也远不及重工业。

与“重工业优先,轻工业、农业同时发展”的表述不同,可以说朝鲜推进了重工业优先政策。那为什么表达得这么模糊呢?





可能是因为意识到了百姓的抗议。百姓们对朝鲜当局推进重工业优先政策会表示欢迎吗？应该不会。从百姓的立场来看,战争刚刚结束,所以维持生计都很困难,他们更期待先拯救轻工业和农业。因此,通过如此模糊的表达,给人以重视轻工业和农业的印象。

现在我们来看看战后重建期朝鲜经济政策的第二个特征——社会主义改造的全面展开。此前我们已经确认过,朝鲜战争之前,即20世纪40年代后期,农业或工商业部门为了向社会主义转型而逐渐展开行动。

在农业方面,允许分配的土地私有化,但已经采取了向社会主义集体农场转型的过渡措施。另外,在大部分生产设施已经国有化的情况下,虽然存在部分个体工商业,但也出现了将他们打造成合作组织的动向。

朝鲜战争以后,在推进战后重建的过程中,这种动向变得更加强烈。在战争导致全国国土荒废的情况下,也有利于朝鲜当局推进社会主义转型的一面。为什么呢?

不管怎么说,个人很难修复战争中受损的农田或灌溉设施。最终,地区居民不得不共同进行重新修建,朝鲜当局利用这一点推进了农业合作化。推进农业合作化也列入了前述的国民经济恢复发展三年计划。

农业合作化方式共有三种。但是,近80%的农业合作社选择了最具社会主义特点的第三类。此种类型是将集体农场内的土地和役畜、农具等合并共有,一同耕作并按劳分配。

之前我们在讲到20世纪40年代后期时,曾提到过“双套牛犁杖班”。与“双套牛犁杖班”相比,我们可以看到,通过农业合作化,社会主义改造有了进一步的进展。“双套牛犁杖班”虽然共同使用了役畜,但并没有把土地全部合并。另一方面,通过农业合作化,不仅共同使用役畜,而且土地也实现了合并。

但在这个阶段,大部分土地都是以合作社成员共享的形式存在。这被称为“合作共有”。目前为止,土地的“全民所有”,即国有化,还仅限于对部分土地实行。





农业合作化始于1954年，1956年底完成了80%左右。在进行过程中，有的农民拒绝加入合作社，有的农民加入合作社后又退社。 尽管经历了波折，但到1958年8月，农民终于全部加入了合作社，完成了农业合作化。 如此形成的合作农场体制虽然也存在一些变化,但其基本框架直到目前仍然保持不变。

另一方面，不仅是农业，个体工商业也推进了合作化。朝鲜战争之前,个体工商业在生产中所占的比重为10%左右。 但是在战争过程中,个体工商业萎缩,战后个体商贩在工商业部门所占的比重有所下降。

因此，个体工商部门合作化工作与农业合作化不同，没有波折且进展相对顺利，同农业合作化一样，于1958年结束。

本节课讲述了经过20世纪50年代前后的重建,朝鲜经济完成社会主义改造的过程。下节课我们来看一下20世纪60年代朝鲜中央集权计划经济体制形成的过程。



2-3

1960年代的朝鲜经济：中央集权计划经济体制的形成

各位同学大家好。

上节课我们学习了20世纪50年代朝鲜经济的社会主义改造过程。本节课我们将探讨20世纪60年代朝鲜中央集权计划经济体制的形成过程。正如上节课所看到的一样，朝鲜从解放后到20世纪50年代一直在探索向社会主义经济体制转变。解放后，农业部门通过土地改革为向社会主义经济过渡创造了条件，在战后重建过程中积极推进农业合作化，最终在1958年完成了农业合作化。

解放后，工商业的大部分行业都实现了国有化。但也存在一些个体工商业，对此也推进了合作化并在1958年完成。

第一节课中，我们讲述了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两个核心特征。就是禁止生产资料私有和中央集权的计划经济。可以说，20世纪50年代完成了禁止生产资料私有的工作。

现在来看一下20世纪60年代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另一个特征——中央集权的计划经济的构建工作的完成。中央集权的计划经济就是说，将劳动、资本等生产要素或商品分配到哪里、分配多少等与经济行为相关的所有决策权限集中到了国家。虽然这些体系已经遭到严重破坏，但总体框架一直保持到现在。

那么，以企业部门为中心，我们来看一下经过20世纪60年代，朝鲜的经济管理体系是如何形成的。

可以说备选方案工作体系和“计划的一元化、细化”是朝鲜中央集权计划经济体制的两大轴心。首先来了解一下备选方案工作体系。

先从备选方案工作体系的名称说起。这个名称代表的意义是，1961年12月，金日成在平安南道南浦的大安电气工厂进行现场指导时，发表了有关企业管理方案的讲话内容。



为了理解这一点,有必要先了解一下朝鲜工厂和企业之前的管理体制。解放后到20世纪50年代,朝鲜工厂和企业的管理体制是经理“唯一管理体制”。即企业经理对企业的生产活动进行全面管理和运营,并对结果负责的制度。

当然,即使这样,经理也不能独自做出决定。在社会主义国家,要以党,即朝鲜劳动党为核心。所有决策都是以党为中心做出的。

当时的企业也是如此。虽然经理所具有的自主性与之后相比相对较大,但并没有规定经理要接受党的“指导”,而实际上却是通过各企业中的党组织,对经理进行了党的指导。

那么, 备选方案工作体系与“唯一管理体制”有何不同呢?备选方案工作体系就是工厂党委代替经理主导企业内部决策的制度。党委由党委书记、经理、总工程师、劳动组织负责人等组成。通过党委来管理和运营企业的生产活动被称为集体指导。

也就是说,随着备选方案工作体系的引进,所有与企业管理及运营相关的事项都由党委通过集体讨论决定。而且最终的责任也由党委承担。

大家看到的图片是朝鲜工厂和企业的管理、运营组织体系。朝鲜的企业管理体系就是这样,党委作为最高决策机关存在,其下级有经理和党委书记。

经理就是负责财政、劳动、材料供应、工人福利等后勤工作的行政组织负责人。党委书记负责指导工人的政治组织生活。从图上来看,经理下面有总工程师,总工程师亲自指导和管理生产现场,负责统筹整个生产过程。之前说过,总工程师也是党委成员。

朝鲜工厂及企业的管理•运营组织体系如此构成,虽然党委是最高决策机关,但实际上主导企业决策的是党委书记。而且企业的所有经营活动都是在党的管制下进行的。因为党委书记拥有企业管理的实际决策权。

在备选方案工作体系中,关于企业运营的所有问题,经理必须与党委书记商议。另外,对于企业管理上的重要问题,必须向党委书记报告。





综上所述,与20世纪50年代之前实施的唯一管理制相比,经理在备选方案工作体系中的权限减弱,企业内部决策由党委书记代替经理牵头。

但是对于企业运营,经理和党委书记谁更专业呢?当然是经理更具有专业性。另外,党委书记在企业的决策过程中,比起经济因素,考虑更多的是政治因素。因此,这种让党委书记代替经理牵头企业决策的措施,可以说对企业经营产生了负面影响。关于这一点,以后会有机会再谈。

到目前为止,我们分析了备选方案工作体系中,党委书记代替经理牵头企业内部决策的问题。备选方案工作体系中,生产所需的材料或资金的供应体系也发生了变化。

过去,企业自己去获取材料。但是在备选方案工作体系中,内阁的省或管理局负责向企业以实物形式供应材料。这被称为“集中式材料供应体系”。与此同时,也建立了“唯一的资金供给体系”。企业运营所需的资金也是由国家负责供应。

到目前为止,我们了解了备选方案工作体系。其核心是出现了以党委书记为中心的结构上的变化,以及生产材料、资金供给体系的变化。

前边说过,朝鲜中央集权的计划经济的两大轴心是备选方案工作体系和“计划的一元化、细化”。继备选方案工作体系之后,我们再来了解一下“计划的一元化、细化”。

1965年引进了“计划的一元化、细化”。计划的一元化是指所有经济活动都根据中央计划当局的命令系统地进行计划。就是中央命令和统筹一切经济活动。

计划的细化,顾名思义就是尽可能详细地制定计划。旨在通过这一措施,使经济部门、企业、地区之间更加协调。

朝鲜当局之所以要更加系统地制定并实施计划,是因为期待通过提高计划经济体系的完成度,克服之前在计划经济运营过程中核实的问题。在后续课程中我们会学到,这些尝试并不成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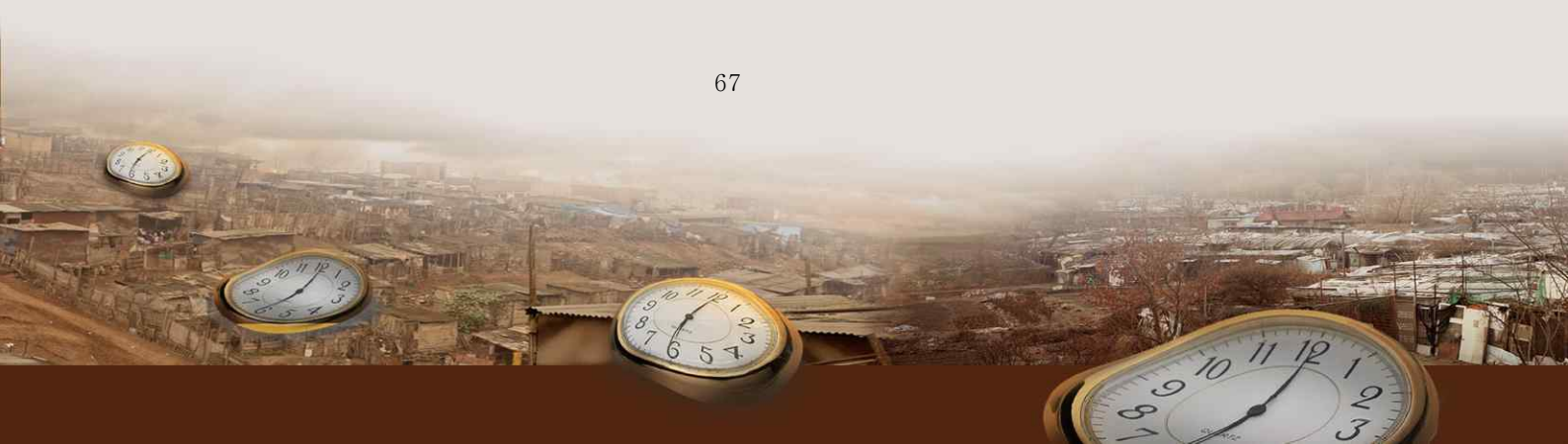




到目前为止,以朝鲜中央集权计划经济体制两大轴心的备选方案工作体系和“计划的一元化、细化”为中心,分析了20世纪60年代中央集权的计划经济的构建工作。

这样,我们完成了20世纪40年代中期到20世纪60年代朝鲜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构建过程的学习。我们了解了朝鲜当局通过哪些阶段,解决了禁止生产资料私有和中央集权的计划经济形成等与构建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核心相关的问题。

那么当时朝鲜的经济成果如何呢?下一节课我们将分析20世纪60年代之前,朝鲜的经济实绩。



2-4

1950년대-1960년대朝鲜的经济实绩

各位同学大家好。上节课我们学习了20世纪60年代朝鲜中央集权计划经济体制的构建过程。本节课我们将探讨20世纪50年代至60年代朝鲜的经济实绩。

20世纪50年代至60年代，朝鲜不仅构建了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还追求经济的快速增长。那么，其成果如何呢？

前面提到，朝鲜当局20世纪60年代初期以后没有发表过关于经济增长率的统计。因此很难掌握朝鲜的经济实绩。但是有朝鲜当局发表的零散资料，以及利用有限资料估算的当时朝鲜经济实绩的研究，因此可以大致确认其实际情况。

首先来看一下图中所示的朝鲜当局公布的经济增长率。这是朝鲜在一定时期内公布的平均值。提示大家一下，社会主义国家的经济增长率的计算方式与常用的计算方式略有不同。大家在看这份资料时要牢记这一点。

(资料显示) 20世纪50年代中期，(朝鲜的) 年均经济增长率达到30%，50年代后期也超过了20%。进入20世纪60年代后，增长率虽然与20世纪50年代相比有所下降，但仍然保持很高的水平。

但是这些统计完全脱离了现实。假设20世纪50年代中期南北双方的收入水平相当，这样假设的理由将在后面加以说明。按照朝鲜当局公布的增长率来看，1980年朝鲜的人均收入是韩国人均收入的三倍。这是完全不符合常识的结论。作为参考，我们将在第3周的讲座中学习1980年前后朝鲜的经济状况。

现在来看一下对朝鲜经济实绩进行估算的研究结果。这份资料是韩国银行研究人员估算的结果。这里展示的统计数据始于1957年。据推测，20世纪50年代后期经济增长率为13.6%。



虽然比朝鲜发表的21%低,但也是很高的水平。20世纪60年代,增长率约为4%。与朝鲜发表的内容相比,这是非常低的水平。朝鲜发表的统计和韩国银行研究团队发表的资料中,哪一个更符合现实呢?正如前面所说,朝鲜发表的统计与现实大相径庭。相比之下,韩国银行研究团队估算的结果是增长率大幅下降,似乎更接近现实。

当然,这些估算也可能不准确。因为估算经济增长率的可用资料非常有限。尽管如此,这对于理解朝鲜经济的长远趋势没有太大影响。从现在开始,我们将根据韩国银行研究团队估算的结果进行讨论。

正如大家之前所看到的,朝鲜经济在20世纪50年代后期呈现快速增长趋势,进入20世纪60年代后,增长率大幅放缓。可能会出现两个与此相关的问题。首先是20世纪50年代后期如何实现的快速增长。另外一点是进入20世纪60年代后,增长势头放缓的原因是什么。对此我们逐一了解一下。

首先来看一下20世纪50年代后期实现高增长率的原因。想要实现经济增长的话,需要增加劳动、资本等生产要素的投入或提高生产率。我们从这些因素出发,一起来看一下经济增长的原因。

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可以说有利于增加生产要素的投入。因为既可以动员劳动力投入到生产一线,还可以通过强制储蓄机制大幅增加资本投资。实际上,大部分社会主义国家在初期以这种被称为外延增长的方式,即通过增加生产要素投入的方式实现了高增长率。

朝鲜也实行了这样的政策。例如,由于朝鲜战争,男性劳动力不足,朝鲜在20世纪50年代中期以后实施了动员女性劳动力的政策。另外,还通过限制工资或缴纳爱国米、强制储蓄、实施货币改革等方式实现了强制储蓄。其结果是,朝鲜的劳动投入和资本投资规模得以提升。

而且朝鲜当局开展的群众运动也产生了影响。20世纪50年代末开展的“千里马运动”是朝鲜群众运动的典型案例。一般在社会主义建设初期,这种点燃革命热情的群众运动经常会吸引大众的参与,在朝鲜,这种群众运动对经济成长也起到了积极作用。





援助也很重要。朝鲜从苏联、中国、东欧等社会主义国家得到了大规模的资本和技术援助，这些都有助于经济增长。另一个重要因素是战后重建期。在战后重建的过程中，快速生长是一种普遍现象。

综上所述，20世纪50年代后期经济快速增长是增加劳动、资本的投入促进外延增长、开展千里马运动等群众运动、外部支援、战后重建的特殊情况等综合作用的结果。

那么,进入20世纪60年代后，增长率大幅下降的原因是什么呢?首先需要强调的是,初期实现如此高的增长率后,增长势头迅速放缓的现象多出现在社会主义国家。换句话说,这与社会主义经济存在的问题密切相关。

最大的原因可能在于不能持续推进外延增长。初期,劳动或资本的投入增长率可以维持在较高水平,但不能长期持续下去。因此,增加生产要素投入的外延增长,一定时期后必然会达到极限,此后需要通过提高生产效率来促进内涵式增长。

但是在社会主义国家,企业之间没有竞争,经营者、劳动者没有提高生产率的诱因,因此内涵性增长的推进工作很可能失败。进入20世纪60年代后,朝鲜也开始面临这种困难。

通过群众运动吸引大众参与的效果也很难持续下去。在社会主义国家,初期的革命热情减弱的话,社会就会出现规范和纪律弱化的现象,进入20世纪60年代后,朝鲜也出现了这一迹象。

另外,南北分裂的特殊情况导致的军费负担,也成为制约经济持续增长的因素。虽然韩朝南北双方都背负着这样的负担,但是朝鲜的人口比韩国少,因此即使南北双方支付同样的军费,也只能是朝鲜的人均军费负担更大。

综上所述,进入20世纪60年代以后,朝鲜的外延式增长政策逐渐暴露出其局限性,但由于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局限从而未能推进内涵性增长,群众运动的效果减弱,再加上军费支出负担过重,最终导致增长率大幅放缓。

最后,我们来看一下20世纪50年代到60年代朝鲜的收入水平。首先比较一下韩朝南北双方的收入水平。





图片是对这个时期韩朝人均收入水平的比较。在分析之前,似乎有必要说明一下是如何计算的。首先,假设1955年韩朝收入水平相同。之前我们已经确认过,解放时,朝鲜的收入水平几乎是韩国的1.5倍。

但是解放以后,韩国的收入水平增加了1.5倍或更多,而朝鲜的收入水平很有可能原地踏步。综合来看,1955年韩朝的人均收入水平大致相同。当然,这是综合考虑各种情况后估算的结果,完全有可能存在误差。

而且朝鲜的年度收入,是利用1955年的收入以及之前提到的韩国银行研究团队估算的朝鲜收入增长率来计算的。

图中还标注了韩国的收入,这是麦迪逊历史统计2018版收录的数据。

麦迪逊历史统计是一份反映全球许多国家长期收入水平变化的材料,进入屏幕所示的格罗宁根大学格罗宁根成长与发展中心网站即可下载。麦迪逊历史统计中虽然也有关于朝鲜收入的数据,但是因为1955年的朝鲜收入水平过低等问题,所以在这里用之前介绍的方式重新进行了推算和比较。

现在再来看一下韩朝南北双方收入水平的对比图。韩朝南北双方的增长趋势形成了鲜明的对比。此前提到过,朝鲜在20世纪50年代后期实现了经济的快速增长,但进入20世纪60年代后,增长势头大幅放缓。图片中的朝鲜收入水平变化趋势很好地反映了这一情况。

相反,韩国初期相对来说收入增长幅度不大。但进入20世纪60年代后,随着经济增长率的上升,特别是20世纪60年代后半期,收入增长趋势越来越明显。结果到1970年,韩朝的收入差距缩小。但是朝鲜的收入水平高于韩国的情况一直持续到1970年。这在今天是很难想象的。作为参考,此后韩国的收入水平迅速上升,20世纪70年代初,韩朝的收入水平发生逆转。

那么,将朝鲜的收入水平与更多国家进行比较的话会怎么样呢?

这是之前提到的麦迪逊历史统计中提出的145个国家的人均收入水平和前面得出的朝鲜的人均收入水平的对比图片。



对比1960年和1970年,图中列出了朝鲜的收入、146个国家的中等收入、下位25%的国家的收入,以及朝鲜在146个国家中的排位。

其中,1960年朝鲜在146个国家中排名第73位,1970年排名第83位,下降了10个名次。20世纪60年代随着增长速度的放缓,朝鲜的收入排名有所下降,但从整体上看,20世纪60年代,朝鲜并不像今天这样属于非常贫穷的国家之一。

作为参考,世界银行每年以收入水平为基准对各国进行分类并公布结果,朝鲜从1998年开始一直被分类为收入水平最低的低收入国家。

将朝鲜与其他国家的比较结果进行整理后发现,到20世纪60年代为止,朝鲜的收入水平比韩国高,与全世界相比也不属于低收入国家。换句话说,到20世纪60年代为止,朝鲜的经济发展水平还不错,但在过去的50多年里,相对来说没有增长,现在成了低收入国家之一。为什么情况会恶化到这种程度呢?关于这一点,我们将在下一节课中讲解。

我们来整理一下所学的内容。本次讲座我们学习了解放后到20世纪60年代的朝鲜经济。

首先,从解放后的朝鲜经济状况来看,可以确认当时朝鲜比韩国拥有更有利于经济发展的条件。因为大型的工业设施、发电设备、地下资源等都集中在朝鲜。本节课学习了从土地改革、工业设施的国有化开始,朝鲜为推行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而推进的政策。

对于20世纪50年代的朝鲜经济,我们主要聚焦于朝鲜战争结束后的战后重建时期,进行了分析研究。在战后重建过程中,朝鲜提出了“重工业优先,轻工业和农业同时发展”的口号,但实际上是集中在投资重工业上。本节课还强调了在这一时期朝鲜正式进行了社会主义改造。推进了农业和工商部门的合作化,到1958年底,两个部门各自的合作化都基本完成。

接着我们了解了20世纪60年代的朝鲜经济。如果说20世纪50年代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核心特征之一是禁止生产资料私有,或者推动了生产资料国有化的话,那么20世纪60年代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另一个特征是构建中央集权的计划经济。



其核心是什么呢?是备选方案工作体系和“计划一元化、细化”。引进备选方案工作体系后,党委书记代替企业经理牵头,同时还引进了由国家负责供应生产所需的材料和资金的体系。本节课确认了由“计划一元化、细化”的引进而形成的计划经济框架。

最后分析了20世纪50至60年代朝鲜的经济实绩。对朝鲜经济实绩进行估算的研究结果显示,朝鲜在20世纪50年代后期呈现出快速增长趋势,进入20世纪60年代后增长率大幅下降。

20世纪50年代后期经济的快速增长是增加劳动、资本投入促进外延增长、开展千里马运动等群众运动以及外部支援、战后重建的特殊情况等综合作用的结果。

相反,进入20世纪60年代以后,经济增长率大幅下降的原因是外延式增长政策暴露出其局限性、社会主义计划经济体制的局限性未能推进内涵性增长、通过群众运动点燃革命热情的效果有限、再加上军费支出负担过重等。

但是,直到20世纪60年代,朝鲜的收入水平一直高于韩国,即使从国际比较来看,朝鲜也与现在不同,收入处于中等水平。

相信大家对朝鲜初期的经济状况已经有所了解。这节课到此结束。在接下来的第三节课上,我们将学习20世纪70年代到90年代朝鲜经济的变化情况。那么下节课见。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퀴즈**

**01** 해방 당시 남북한 경제 상황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북한 지역이 남한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았다.
- ② 중공업 생산액은 북한 지역이 월등히 많았다.
- ③ 경공업 생산액도 북한 지역이 더 많았다.
- ④ 발전설비 대부분이 북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다.

**정답** ③

**해설** 일제가 대규모 중화학공업 시설을 북한 지역에 건설했던 까닭에 중공업 생산액은 북한 지역이 월등히 많았으나, 경공업 및 농업 생산액은 남한 지역이 더 많았다.

**02** 해방 이후 북한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5분

- ①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 ② 5정보 미만의 농지를 가진 지주 중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있었다.
- ③ 토지개혁을 통해 분배된 토지에 대해서는 사적 소유권이 인정되었다.
- ④ 남한에 비해 늦게 토지개혁이 이루어졌다.

**정답** ④

**해설** 남한에서는 1950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어 토지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북한에서는 그보다 앞선 1946년 초 토지개혁이 실시되었다.



**03** 1961년 12월 김일성이 평안남도 남포에 있는 대안전기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과정에서 밝힌 기업관리방안을 무엇이라 하는가?  
 10분

**정답** 대안의 사업체계

**해설** 1961년 12월 김일성은 대안전기공장 현지 지도 중 '대안의 사업체계'를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 구축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04** 1950년대 실시된 '유일관리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5분

- ① 당서기에 비해 약한 지배인의 권한
- ② 공장 당위원회가 기업 내 의사결정 주도
- ③ 전문성 활용 측면에서 유리
- ④ 정치적 요소의 고려 가능성이 높음

**정답** ③

**해설** 유일관리제는 지배인이 기업의 생산 활동 전반을 관리·운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지배인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며, 지배인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의사결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서기 중심의 시스템에 비해 유리하다.





## 05 1950년대 후반 북한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5분

- ① R&D 투자 확대
- ② 여성 노동력 동원 정책
- ③ 강제저축
- ④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

정답 ①

**해설** 1950년대 후반 북한경제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력 동원, 강제저축 등을 통해 생산요소 투입을 늘리고, '천리마 운동'을 비롯한 대중운동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 대규모의 자본과 기술을 원조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보고서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글 혹은 워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 주제

196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성장률이 크게 둔화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20분)

### 참고

초기 높은 성장률을 달성한 이후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는 양상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많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주의 경제가 갖고 있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초기 추진한, 노동과 자본 투입 증대를 통한 외연적 성장은 지속가능하지 않으므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포적 성장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기업 간에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경영자, 노동자에게 생산성을 높일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포적 성장을 추진하는 데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또 대중운동을 통해 대중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효과도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군사비 부담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 도서

- 김석진,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 실적 재평가,” 양문수 편, 『김정은 시대의 경제와 사회 - 국가와 시장의 새로운 관계』, 한울아카데미, 2014.
- 안문석, 『북한 현대사 산책』 1~3권, 인물과사상사, 2016.
- 양문수, “북한의 경제발전전략 70년의 회고와 향후 전망,” 『통일정책연구』 제24권 2호, 2015.
- 조태영·김민정, 「북한의 장기 경제성장률 추정: 1956~1989년」, BOK 경제연구 2020-17호, 2020.7.
- Kim, Byung-Yeon, 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 Collapse and Trans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7.

